

석사학위논문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향촌운영과  
향권(鄕權)의 동향

-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석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향촌운영과  
향권(鄕權)의 동향

-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Management of Hyangchon by the Members of Local  
Yangban and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in Late  
Joseon Dynasty in the Imsil-Hyun, Jeolla-do

2020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석 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향촌운영과  
향권(鄕權)의 동향

-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The Management of Hyangchon by the Members of Local  
Yangban and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in Late  
Joseon Dynasty in the Imsil-Hyun, Jeolla-do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석 현

장석현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향촌운영과 향권(鄉權)의 동향 -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장                      석                      현

본 연구는 전라도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운영권을 둘러싼 지방양반의 존재양상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향청과 서원에서 나타나는 지방양반의 역학관계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촌주도권을 바탕으로 발생한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상을 그려냈다.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등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났던 양반의 존재양상을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인식해왔다.

다만 이러한 연구경향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다. 특정지역에서 나타난 주도세력의 변화를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다루지 않았던 전라도 임실지역에 주목했다. 이 지역에서는 경제상황이 보통의 수준이었으며 지역을 대표할만한 중앙관료인사 또는 특정학맥이 부재했다. 때문에 이곳의 양반들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 유지하고자 자체적인 결속을 추구해야만 했다. 이러한 임실

지역 양반사회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권(鄕權)을 둘러싼 양반사회의 동향에 대해 새로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임실지역 양반의 명부인 『향안(鄕案)』과 『청금안(靑衿案)』의 입록자 성씨분포와 향임(鄕任)·교임(校任)의 역임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17세기~18세기 중엽까지 작성된 『임실향안』에는 총 923명에 이르는 향원의 성명과 본관, 역임했던 향임(鄕任)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작성된 『임실 청금안』에는 1,188명의 교임 역임자를 성명, 본관, 관련 가계(家系) 및 현조(玄祖)와 함께 기입되어 있었다.

『임실향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17세기~18세기 중엽까지 향안의 입록자는 5개의 유력 성씨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향안에 나타나는 24개 성씨 중에서 전체 입록자의 50.3%를 차지해 이 지역 양반사회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19세기 향교 교임의 명부였던 『청금안(靑衿案)』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향안』의 입록을 주도했던 유력성씨는 향교에서도 영향력을 지속했다. 이들은 전체 입록자 중 62.7%에 해당했다. 특히 『향안』에서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던 5개의 유력성씨는 『청금안』에서도 최대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다. 기존 유력성씨의 향권 주도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도세력이 지속되는 양상은 향임과 교임의 역임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반조직에서 향권을 대변했던 향장(鄕長)과 좌수(座首), 별감(別監), 향교의 교임(校任)은 소수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역임되었다. 특히 유력성씨 중에서도 대성(大姓)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주 한씨, 전주 이씨에서 집중적으로 역임했으며 다른 유력성씨는 이들을 중심으로 분리되었다. 이들은 향권을 둘러싸고 서로 ‘균형’과 ‘견제’의 양상을 보여 향권의 지속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대성(大姓)에 속하는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는 성씨 내 유력가계로의 향임·교임 역임 집중과 그를 통한 ‘향촌사회에서의 대표성 강조’, 그리고 문중사우의 서원승격과 주자배향을 통한 ‘성리학적 대표성 강조’의 방식으로 향권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자 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실지역의 양반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던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수 유력성씨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다. 이처럼 지역 양반사회의 운영을 주도했던 소수의 유력성씨들은 내부적으로 청주 한씨, 전주 이씨의 두 대성(大姓)이 주축이 되어 여타의 유력성씨가 참여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어 : 향권(鄉權), 『향안(鄉案)』, 『청금안(靑衿案)』, 향임(鄉任), 교임(校任),  
주자배향 서원



# 목 차

제 1 장	머 리 말	1
제 2 장	임실현의 사회경제적 특징	7
제 3 장	임실현 양반사회의 구성과 주도세력	11
제 1 절	『任實鄉案』을 통해 본 17세기 양반사회의 구성	11
제 2 절	『任實 靑衿案』에 나타나는 18~19세기 양반사회의 운영양상	19
1)	임실향교와 『任實 靑衿案』의 작성	19
2)	『任實 靑衿案』에 나타나는 양반사회의 특징	23
제 4 장	임실현 양반사회 鄉權의 동향	30
제 1 절	향임 · 교임의 재임과 향권의 동향	30
제 2 절	소수 유력성관의 향권 지속을 위한 노력	38
1)	특정가계 중심의 향임 · 교임 재임을 통한 향권의 지속	38
2)	지방양반의 대표성 강조와 향권의 지속	42
제 5 장	맺 음 말	48
참 고 문 헌		52
부       록		56
ABSTRACT		60

## 표 목 차

[표 3-1]	『임실향안』 입록자 성씨별 분포 .....	13
[표 3-2]	『임실 청금안』 입록자 성씨별 추이 .....	24
[표 4-1]	시기별 향입, 교입 재임양상 .....	31
[부표 1]	『官方要覽』 官職 附外官案 全羅道 정리표 .....	56
[부표 2]	임실지역 서원 및 사우의 분포 .....	57
[부표 3]	1914년 임실군 경제상황 .....	58
[부표 4]	1689년 『임실향안』 2향, 3향에 속한 성관의 분포 .....	59

## 그 림 목 차

[그림 2-1]	조선후기 임실현 지역도 .....	9
[그림 3-1]	『임실향안』 입록성씨의 그룹별 추이 .....	14



# 제 1 장 머 리 말

양반은 성리학의 수용을 주도하면서 조선시대 지방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사회적 계층이었다. 양반의 계층은 법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대신, 사회 관습에 따라 결정되어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입증해야만 했고, 지방사회 내에서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집단과 조직을 형성해야만 했다.

조선시대의 지방양반들은 대체로 16세기부터 지방사회에서 세력을 형성했다. 이들은 유교적 지배관념에 입각해 사회적 권위를 갖추었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향촌기구를 설치했다. 대표적인 향촌기구로 향청(鄉廳)과 향교(鄉校), 서원(書院)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지방민에 대한 향촌교화 및 관(官)과의 관계를 통해 향촌사회 내 권력 공간을 형성했다.<sup>1)</sup>

특히 이곳의 양반들은 그들의 명부로써 『향안(鄉案)』, 『청금안(靑衿案)』, 『원생안(院生案)』을 작성했는데, 이 명부는 개인이 집단에 속해있음을 확인하는 양반공동체의 상징이었으며, 양반개인이 지방사회에서 가지는 권위의 표현이었다.<sup>2)</sup>

또한 이 세 안(案)에서는 양반의 향촌조직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직임이 존재했다. 이 직임은 곧 양반조직을 대표해서 공론(公論)을 형성하고, 지방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권한을 향권(鄉權)이라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이 세 안(案)에서 지방양반 중 어느 성씨에서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는지, 그리고 양반조직의 직임은 어느 성씨에서 집중적으로 역임했는지에 따라 지방사회 향권의 동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향청과 향교, 서원에서 작성된 양반의 명부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구조를 살피려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진행되었다. 지방 양반사회의 주도세력 변화에 주안점을 둔 연구와 그에 대한 반동으로 양반사회의 지속에 주목한 연구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전자의 경향에 따라 향청, 향교, 서원에 나타난 지방양반의 모습에 주목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에서는 기존부터 향권을 주도했던

1) 송준호. (1987). 『朝鮮社會史研究』. 서울:일조각; 미야지마 히로시. (2014). 『양반』. 서울:너머북스.

2) 정진영. (1988). 『조선시대 향촌사회』. 서울:한길사.

구향(舊鄉)세력과 새롭게 향촌사회로 유입해 향권을 주도하고자 했던 신향(新鄉)세력 간의 향전(鄉戰)을 통해 양반사회 구조의 변화양상을 그려냈다.<sup>3)</sup>

특히 많은 연구에서 양반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 이를 통한 향촌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향청의 명부인 『향안(鄉案)』에 집중했다.<sup>4)</sup> 향안에 나타난 파치(罷置)의 흔적과 특정시기를 기점으로 나타나는 향임(鄉任) 역임 성씨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제시하면서 지방양반 간 新, 舊세력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sup>5)</sup>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임실지역과 관련해서도 향안에 나타난 양반층의 성씨분석을 통해 임실지역 양반사회에서 나타난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연구가 최근 제시된 적 있다.<sup>6)</sup>

한편, 지방양반 내 향촌 주도세력의 변화를 서원에서 찾으려는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었다. 서원은 많은 지방양반이 결집해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뒷받침했던 대표적인 거점공간이었다. 이곳은 학문과 도학(道學)의 공간인 동시에 지방양반의 공론을 모으고 이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향중공론(鄉中公論)의 장으로 기능했다.<sup>7)</sup>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원의 사회적 중요성에 주목

3) 기존의 연구에서는 향전(鄉戰)에 대해 향권의 주도를 바탕으로 발생한 지방양반 내부의 분열 또는 향촌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의 성장에 따른 기존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17세기에 나타난 이른바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18세기를 중심으로 약화되면서 향촌사회 운영을 둘러싸고 향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립은 유향(儒鄉)간의 대립, 향안입록을 둘러싼 지방양반 내부의 대립, 향임역임을 둘러싼 지방양반의 대립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정진영. (1988). 『앞의 책』; 강만길. (2000). “향전의 전개와 향안질서의 해체”. 『한국사 1』. 한길사; 김인걸. (1991). “조선후기 鄉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19세기 '鄉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김용덕. (1978). “鄉廳研究.”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김인걸. (1983). “조선후기 鄉案의 성격변화와 재지사족” 『金哲堧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김현영. (1999). 『朝鮮時代의 兩班과 鄉村社會』. 서울: 집문당; 정진영. (1999) “16,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구조”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강만길. (2000). “향전의 전개와 향안질서의 해체” 『한국사』1, 한길사.

5) 김준형. (2005). “향안입록을 둘러싼 경남 서부지역 사족층의 갈등.” 『조선시대사학보』33. 조선시대사학회; 김현영. (2003). “17세기 '鄕中'=향안조직의 형성과 향촌자치” 『민족문화논총』2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한국역사연구회; 이상순. (2014). “18~19세기 懷仁縣 지역 在地士族의 결합양상” 『지방사와 지방문화』17. 역사문화학회; 김경란. (2019). “조선후기 忠淸道 公州牧의 有力 姓氏와 향촌 지배세력의 추이-『鄉案』, 『居接名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92. 호서사학회. 등.

6) 이종석. (2019). “17, 18세기 任實縣의 주도 성관 변화 추이 -향안과 통문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이태진. (1978).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 서울: 집문당

해 서원의 배향인물 선정 및 서원의 운영을 둘러싼 지방양반들의 길항관계를 밝히고자 했다.<sup>8)</sup> 이를 바탕으로 향촌지배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양반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표현했던 것이다.

향청, 서원을 통해 조선후기 양반사회를 살펴보았던 연구와는 달리 향교와 『청금안(靑衿案)』을 분석해 양반사회의 모습을 밝히고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양반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려는 연구에서는 향교 교생의 출신과 존재양태에 주목했고 그곳의 명부인 『교생안(校生案)』·『청금안』 분석에 집중했다.<sup>9)</sup> 향교에 출입하는 양반과 교생(校生)이 출신 신분에 따라 액내, 액외로 구분되었고 교임(校任)의 역임도 액내에만 한정된 점, 그리고 액내교생들이 18세기 이후 청금안을 따로 작성했던 점에 집중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교가 지방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양반사회 안에서의 역할 및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와 함께 향교의 경제기반을 분석해 청금유생 내부에서의 대립을 그려낸 연구가 제시되었으며,<sup>10)</sup> 청금안의 입록자 성관분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18~19세기 새로운 성씨가 유입함을 근거로 지역 양반사회의 변화양상을 보이하고자 했다.<sup>11)</sup>

이상의 연구경향과 달리 일부의 연구자들은 향촌 주도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에 집중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특정 지방의 향안에 주로 입록한 성씨를 분석해 향안을 “지방 유력가문집단의 문화적, 제사적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비공식적 명부로 규정했다.<sup>12)</sup> 향안의 입록이 오랜 시간동안 특정 성씨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8) 최근 서원을 통해 지방사회의 구조를 분석한 논문으로 차장섭. (2015). “陶山書院의 政治, 社會的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김의환. (2016). “조선후기 단양 사족의 동향과 평산 신씨의 향촌사회 활동.” 『역사와 실학』59. 역사실학회.; 안다미. (2019). “부여현 사족의 서원 활동과 ‘原鄉之家’의 의미.” 『역사와 담론』89. 호서사학회. 등을 들 수 있다.

9) 송찬식. (1977). “朝鮮後期 校院生考” 『國民大論文集』11.;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서울:일조각; 유기선. (2017). “17~1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한국서원학보』5. 한국서원학회; 홍계연. (2018). “금산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錦山의 재지세력.” 『역사와 담론』88. 호서사학회.

10) 윤희면. (1988).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기반.” 『한국사연구』61. 한국사연구회.

11) 박진철. (2006). “朝鮮 後期 鄉校의 靑衿儒生과 在地士族의 動向-羅州 靑衿案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김현영. (1999). 『앞의 책』.; 윤희면. (2014). “조선후기 구례향교의 양반유생과 교육활동” 『남도문화연구』 27.

12) 가와지마 후지야(四川孝三). (1975). “朝鮮의 鄉規について.” 『朝鮮學報』76. 朝鮮學會.; (1987). “단성향안”에 대하여. 『청계사학』4. 청계사학회.; 이정우. (1998).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동향과 유림의 향촌지배 -전라도 금산군 서원·향교의 지폐와 고문서류의 작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 조선시대사학회.

또한 경상도 단성현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방양반이 집단의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나름대로의 개방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조직을 형성했고 이로써 향촌 내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밝힌 연구도 존재했다.<sup>13)</sup> 향교와 관련해서도 주도세력의 지속적인 특징을 살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의 향교 재정운영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향교출입 양반들이 지속적으로 재정보호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교의 강학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바라보았다.<sup>14)</sup>

이후의 연구들 중에서 위 연구들의 경향을 유지하며 지방양반의 주요 명부(鄉案, 院生案, 校生案)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석한 연구도 제시되었다.<sup>15)</sup> 이 연구에서는 17, 18세기 경상도 예안현의 향안과 서원의 원생안, 향교의 교생안을 분석했다. 16세기 후반부터 서원을 중심으로 양반사회가 통합되었으나 18세기 서원과 향교가 이원화되고, 양반 내부에서는 문벌이 등장함에 따라 특정 소수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후기 사회의 ‘지속’적 특징을 밝힌 연구가 일부 제시되었다.<sup>16)</sup>

이상에서 살펴본 다수의 연구 성과를 통해 향권을 둘러싼 지방양반의 존재양태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여러 지역의 자료를 이용해 양반사회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반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중앙의 정치상황, 나아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다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조선후기 지방양반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에 다소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다.<sup>17)</sup> 여전히 지방 양반사회의 동향은 연구방법이나 연구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조선후기 지방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에 대한

13) 윤인숙, (2014). “17세기 단성현 엘리트의 조직형성과 인적 네트워크: 단성향안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14) 문광균, (2018). “19세기 연기향교의 재정운영과 흥학책”.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박범, (2018). “19세기말~20세기초 공주향교의 재정운영과 성격”.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15) 박현순, (2007). “17,18세기 예안현 사족사회와 향안, 원생안, 교생안.” 『고문서연구』 30.

16) 마르티나 도이힐러, (2003).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아카넷;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서울:너머북스.

17) 송준호, (1986). “조선의 양반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북문화논총』 1.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실증적인 연구 성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대다수 지역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경우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치상황과 크게 연계하지 못했던 지역의 양반 역시 사회적 권위와 향촌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대립양상을 보였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지방의 양반들은 중앙관직 또는 특정학맥을 통해 세력을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권의 주도를 목적으로 대립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중앙 또는 유력 학맥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경우는 사실상 일부에 해당했다. 다수 지역의 양반들은 중앙정부와 巨族의 권위에 기댈 수 없었으며 오로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해야만 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향촌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도세력의 변화양상이 나타났을 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지방양반의 권력공간으로써 향교의 역할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사례연구가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16~17세기 서원의 증설과 지방양반의 문중화로 향교가 양반사회를 대표하지 못했고, 서원이 그 기능을 대신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향교는 지방사회에서 중앙의 권위를 대표했고 유교적인 이상과 이념을 지방으로 확산, 심화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강력히 반영된 곳이었다. 때문에 서원이 큰 기능을 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향교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향촌사회에서 지방양반의 존재양상과 그 구성을 본질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향교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전라도 입실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지역의 경제상황은 전라도 고을 중에서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했으며, 지역을 대표할만한 중앙관료 또는 특정학맥은 부재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양반들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 유지하고자 자체적인 결속과 내부에서의 경쟁관계를 동시에 형성했다. 이와 같은 양반사회의 모습은 주변의 대읍(大邑)이었던 전주, 남원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실현의 양반사회를 주목한 연구는 소수였다.<sup>18)</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지역 양반사회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지역 양반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8)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전라도 내 지방사회를 향촌기구(향청, 서원, 향교) 또는 三案(향안, 서원안, 청금안)의 분석으로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총 61편이었다. 이 연구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임실현의 양반들이 어떠한 형태로 향권을 형성, 유지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향청에 대한 분석으로 향안이 작성되던 17~18세기 중엽까지 향권의 향배를 살펴보고, 이후 ‘임실향교(任實鄕校)’의 운영에 참여한 지방양반을 살펴 18세기 후반~19세기까지의 지역 양반사회 주도세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임실향안(任實鄕案)』에 나타나는 향임(鄕任)과 『임실 청금안(任實 靑衿案)』의 교임(校任)을 분석해 향권을 둘러싼 이 지역 양반의 존재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향임, 교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지역의 대표 성관인 청주 한씨와 그들의 사우(祠宇)인 ‘신안서원’을 살펴 이 지역에서 서원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2장에서는 본고의 조사지역인 임실현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다. 전라도 다른 지역과의 비교 내용을 통해 임실현의 특징적인 부분을 서술할 것이다. 아울러 ‘신안서원’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실현 향촌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사회구조의 모습을 제시한다. 다음 3장에서는 『임실향안』과 『임실 청금안』의 입록 추이를 분석해 향촌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느 성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며, 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임실현 양반사회의 특징을 제시한다. 靑衿案에 나타난 校任과 鄕案에 등장하는 鄕任의 재임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실현 향권의 동향을 서술할 것이다. 아울러 신안서원과 이 지역의 대성(大姓)이었던 청주 한씨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양반의 향권 지속을 위한 의도를 밝혀보고자 한다.

종합분석	11	나주(羅州)	8	전주(全州)	6
남원(南原)	7	장성(長城)	4	곡성(谷城)	3
태인(泰仁)	3	구례(求禮)	2	담양(潭陽)	2
금산(錦山)	2	광주(光州)	2	장흥(長興)	2
고부(古阜)	1	여산(礪山)	1	해남(海南)	1
장수(長水)	1	영암(靈巖)	1	임실(任實)	1
고흥(古興)	1	영광(靈光)	1	무안(務安)	1
합계			61편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라도 지방양반의 향촌기구에 관한 연구는 나주, 전주, 남원, 장성 등 양반의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임실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는 한차례의 연구만이 진행되었으며 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제 2 장 임실현의 사회경제적 특징

임실지역은 삼국시대 백제의 ‘영힐군(仍脢郡)’이었으며, 별칭으로 ‘운수현(雲水縣)’이라 불렸다. 통일신라에서는 남원부에 속해 임실군(任實郡)이 되었고<sup>19)</sup> 고려 때에는 전주목(全州牧) 밑에 속했으며, 남원부의 속군(屬郡)이기도 했다. 조선조 1413년(태종13) 임실현(任實縣)으로 개칭되었으며 준례에 따라 종6품의 현감(縣監)과 훈도(訓導)를 각 1명씩 파견했다.<sup>20)</sup> 이후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도, 북도로 분리됨에 따라 면이 통폐합됨으로써 지금의 임실군으로 개편되었다.

임실군의 치소(治所)는 본래 오늘날 청웅면 구고리에 위치했었으나, 이후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 오늘날 용요산(龍繞山) 아래로 옮겨졌다.(現 임실읍 이도리)<sup>21)</sup> 이곳에는 현재까지 ‘임실향교(任實鄉校)’가 위치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향교의 남쪽으로 객사(客舍)와 아사(衙舍) 등의 치소(治所)가 자리했다.<sup>22)</sup> 이로부터 임실현의 읍중(邑中)이 임실읍 이도리에 형성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치소(治所)로부터 5리~10리 정도 떨어진 신안면(新安面)에는 청주 한씨의 사우였던 신안사(新安祠)를 전신으로 하는 신안서원(新安書院)이 위치해있다. 이곳은 주자(朱子)의 영정을 배향하고,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청주 한씨의 현조(顯祖)를 봉안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이 지역 청주 한씨의 집성마을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임실군의 위치와 경제상황에 대해 읍지(邑誌)에서는 “동으로 고덕산과 성수산이 있고, 서로는 운암강 등이 둘러싸고 있으며 땅의 넓이는 100여리이고 방면(方面) 수는 18개이며, 방비가 굳건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 평가 한다.<sup>23)</sup> 실제로 조선후기 관방의 제반을 기록한 『관방요람(關防要覽)』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후기 전라도 고을 중에서 임실현의 호수(戶數)는

19) 『大東地志』 卷13, 全羅道十二邑 任實. “[沿革]本百濟仍脢新羅景德王十六年改任實郡隸全州高麗顯宗九年屬南原明宗二年置監務本朝太宗十三年改縣監. 別號雲水.”

2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9, 全羅道 任實縣. “[建置沿革]新羅因之高麗屬南原府 明宗二年 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例爲縣監.”

21) 『雲水誌』 建置沿革條. “郡基在於白蓮山下九臯面平地村移建于龍繞山下”

22) 『雲水誌』 館宇條. “雲水官在龍繞山下(중략)衙舍在客舍西百步許鳳凰山下南向”

『雲水誌』 鄉校條. “鄉校在縣北一里勝覽云在縣西一里”

23) 『任實邑誌』 “以其東則控高德聖壽山之尖秀以其西則帶雲巖葛潭江之泓澄幅員之廣百餘里坊面之多十有八關防之壯 物產之豐 眞天府之地也.”

5,400여 호(戶)로 56개 고을 중 26번째로 많았다. 이 지역의 전결(田結)은 4,800여 결(結)로 31번째에 해당했다.<sup>24)</sup> 특히 임실지역과 같은 전라도의 산군(山郡)을 비교해 볼 때, 이 지역 전결의 수는 다른 산군지역에 비해 1,500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써 임실현은 다른 산군에 비해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곳이 다른 산지지역에 비해 생활이 풍족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비교는 전라도 산군(山郡)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전라도 내 고을 전체를 고려해보았을 때 임실현의 재정상황은 중위권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임실지역은 위로는 전주, 아래로는 남원의 사이에서 보통의 경제수준을 가진 향촌(鄉村)이었다. 임실현의 읍세(邑勢)가 전라도 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편적인 지역 특성에 반해 이 지역 양반사회의 내부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안서원’을 위시로 하는 이 지역 서원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조선후기의 지방양반이 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했던 것으로 바라본다. 16세기 처음으로 등장해 지방 양반들의 향촌기구로 존속했던 서원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증설되었고 전국의 수많은 서원들이 중앙으로부터 사액을 받아 지방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반면 지방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양반이 서원을 중심으로 공론을 형성함에 따라 지방양반의 공론장으로써의 위상이 향교에서 서원으로 이전했다.<sup>26)</sup>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 지방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었다. 임실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서원이 형성되었고 중앙으로부터 사액도 받지 못했다. 즉 지방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24) <부표1> 『官方要覽』 官職 附外官案 全羅道’ 정리표 참조.

25) 권기중. (2018). “조선시대 任實縣 守令의 출신성분과 在任實態” 『역사와 실학』67. 역사실학회. pp 163-164.

26) 윤희면. (2004). 『앞의 책』. 참조.

〈그림2-1〉 조선후기 임실현 지역도<sup>27)</sup>



임실지역 내에서 현존하고 있는 서원은 총 14곳으로 오늘날 전라북도 행정구역 중에서 남원(南原), 전주(全州) 다음으로 다수였다.<sup>28)</sup> 그러나 이 수치는 일제강점기 부군면(府·郡·面) 통합으로 인해 본래 남원 소속이었으나 임실현으로 옮겨진 서원을 포함한 것이었다. 실제로 14개 서원 중 9개는 본래 남원부에 소속되어 있었다.<sup>29)</sup> 특히 임실군 지사면의 경우 14개 서원 중 5개가 위치하고, 그 중에서는 오늘날 임실지역 서원 중 유일한 사액서원인 영천서원(寧川書院)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요문화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당시 남원부 지사방에서 임실군 지사면으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천서원을 포함한 5개의 서원도 지금의 임실군으로 이속(移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27) 규장각, 『여지도(輿地圖)』, 刊年未詳. 청구기호 古4709-68-v.1-6

28) 임실군과 인접한 전라북도 각 지방의 서원 개수는 아래와 같다.

지명	서원 수						
南原	16	井邑	10	益山	6	鎭安	5
全州	15	高敞	9	茂朱	6		
任實	14	長水	6	群山	6		
金堤	14	淳昌	6	扶安	5		

29) <부표2> 임실지역 서원 및 사우 분포 참조.

30) 「任實郡面ノ廢合ニ関スル件」指令案 『면폐합관계서류』(CJA0002561), 1914

“(理由) 本件ハ現在二十四個面ノ内府郡廢合ノ結果淳昌郡ニ編入サルヘキ靈溪面ヲ除キタル二十三個面ニ南原府ヨリ本郡ニ移サルエキ駅只沙面ヲ加ヘタル二十四個面ヲ十二個ト爲サムトスル…(생략)”. <부표3> 1914년 임실군 경제상황 참조.

지금의 오수면의 경우 1914년 개편당시 둔남면(屯南面)으로 불렸는데, 이는 조선시대 임실현의 남면(南面)과 남원부의 둔덕방(屯德坊)을 통합하여 형성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임실현 남면에 위치한 현풍 곽씨(玄風 郭氏)의 사당으로 기능하였던 삼계서원(三溪書院)과 남원부 둔덕방에 위치하였던 덕계서원(德溪書院)이 임실군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조선시대에 임실현 내 창건된 서원은 1989년 전주에서 이 지역으로 이전한 충효서원(孝忠書院)을 제외하고 4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전라북도에 속하는 고을 중 가장 적은 수였다. 특히 <부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성씨를 중심으로 하는 사우는 16세기부터 창건되지만, 19세기까지 이전까지 서원으로 승격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新安사(新安祠)를 중심으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했다.<sup>31)</sup>

이처럼 임실지역의 서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수였으며, 여타의 지역에 비해 뒤늦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했다. 더욱이 1820년(순조20)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이 지역 서원은 1869년(고종6) 중앙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곧 철폐됐다. 사실상 임실지역에서는 주변의 지역과는 달리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서원이 부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임실지역의 양반들은 향촌사회 내에서 양반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청과 향교에 집중했다. 임실현 양반사회의 향권이 향청과 향교의 명부인 『鄉案』과 『靑衿案』을 통해 구현되고 있었다.

---

31) 임실군 청웅면에는 학정서원(鶴亭書院)이 위치해있다. 이곳은 본래 ‘학정사(鶴亭祠)’로 1600년(선조 33) 함양 박씨의 사당으로 창건됐으며, 1621년(광해 13)에 규모를 갖추어 金千鎰과 朴薰 등에 제향을 실시했다. 이후 화재로 30여 년간 소실되었으나 1656년(효종7년)에 현 위치로 중건했다.(全羅北道鄉校財團, (1994). 『全北鄉校院宇大觀』) 그러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중에서 학정사가 어느 시기에 서원으로 승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워 서원건립의 시기를 비정할 수 없다.

## 제 3 장 임실현 양반사회의 구성과 주도세력

### 제 1 절 『任實鄉案』을 통해 본 17세기 양반사회의 구성

향안은 양반조직인 향청(鄉廳)의 명부로 지방양반을 대표하는 직임인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을 이곳에 입록된 이들 중에서 선출했다. 때문에 향안으로의 입록은 지방양반이 향촌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다. 16세기부터 지방사회에 입향하기 시작한 여러 성씨는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향안질서(鄉案秩序)’로 지칭되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향안에 입록했다.<sup>32)</sup>

임실현의 양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양반은 대체로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유입했다. 이들이 유입하기 이전에는 토착성씨가 지역사회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지에 따르면 임실현의 토성은 文, 全, 陳, 白, 黃, 申 씨 등 11개였다.<sup>33)</sup> 이들은 17세기 이후로 작성된 양반층의 명부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토성과 전혀 다른 12개의 성씨가 새롭게 나타났다.<sup>34)</sup> 이는 곧 17세기를 기점으로 이 지역 양반층의 구성이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향촌 주도세력의 변화에 대해 일부의 연구에서는 동일지역 양반층 간의 ‘향전(鄉戰)’으로 나타난 권력구조 변동으로 규정했다.<sup>35)</sup> 향촌사회의 주도권이 17세기를 기점으로 토성으로부터 신규 유입한 양반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17세기부터 작성되었던 『임실향안』과 『청금안』에서는 토성에 해당했던 일부 성씨가 꾸준히 등장했다. 이를 고려해볼 때 17세기에 나타난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모습을 향전에 따른 완전한 권력구조 변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2) 김경란. (2019). “조선후기 忠淸道 公州牧의 有力 姓氏와 향촌 지배세력의 추이-『鄉案』, 『居接名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92. 호서사학회. p247.

33) 『世宗實錄』 卷 151 地理志. 全羅道 南原都護府 任實縣 “土姓六, 文、全、白、陳、申、任。【右全姓, 或作金, 金姓, 今無。】九皋姓五, 扈、申、林、田、黃。 醉仁姓一, 申。 楊等良姓三, 程、李、明。【一本有梁, 無明。】”

34) 『任實邑誌』 姓氏 “李 金 洪 韓 朴 郭 沈 薛 崔 尹 全 宋”

35)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새로운 성관들이 임실현으로 유입한 것의 원인을 4대 사화의 여파와 외침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사화의 여파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지방으로 낙향하여 새로 자리하였던 것으로 바라본다. 이때 임실지역으로 새로 유입한 성씨의 양반들은 일종의 향전을 전개해 고려시대부터 지방을 주도해온 土姓을 밀어내고 향촌사회를 주도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종석, 앞의 논문, 2019)

토성으로 등장하는 성씨 중 전(全)씨와 황(黃)씨는 향안과 청금안에서 꾸준히 등장했다.<sup>36)</sup> 반면 토성 중 전씨와 황씨를 제외한 성씨들은 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대신, 향리직역 명부인 『운수연방선생안(雲水椽房先生案)』에 다수 등장했다. 이는 토성 중 다수가 향리층에 속해 향촌운영에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37)</sup> 이로써 살펴볼 때 임실지역의 토성은 향전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성씨가 유입되고 임실현 양반사회가 구성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토성은 양반층과 향리층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임실현 토성의 분화와 새로 유입된 성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17세기 이후 형성된 임실현 양반사회의 구성과 동향은 『임실향안』의 입록자 추이 분석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다. 『임실향안』(이하 ‘향안’)은 정유재란 이후인 1599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1736년까지 총 20건의 원적(元籍)과 별적(別籍)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에는 923명에 이르는 향원(鄉員)의 성명과 본관, 입록자가 역임하였던 향임(鄉任)과 그의 품관(品官)이 기재되어 있다.<sup>38)</sup> 향청(鄉廳)의 좌수(座首), 별감(別監)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향안으로의 입록이 필수적인

36) 이 지역의 전(全)씨의 본관은 천안으로 향안에서는 12회, 청금안에서는 9회 등장했다. 1597년 향안에서 전수집, 전영달이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1634년, 1635, 1666년 향안에 全主一이 4번에 걸쳐 입록했고, 1646년, 1659년 향안에서 全慶元이 3차례 등장했다. 일부인물을 중심으로 향안이 작성되던 시기 전반에 걸쳐 등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금안에서는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9차례 등장했다.

37) 권기중, (2018).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향리층의 존재양태-『雲水椽房先生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38) 『임실향안』을 분석한 최근 연구와 필자가 분석한 수치는 다소 상이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通文案』을 향안과 동일한 자료로 인식하고 주도 성씨의 추이를 살펴 총 33건의 기록에 입록인원은 1,172명으로 집계했다. (이종석, 앞의 논문, 2019) 그러나 본고에서는 『任實鄉案』과 『通文案』을 별개의 자료로 인지했다. 통문안의 특수성에 입각해 집계에서 제외했다. 또한 崇禎甲戌別籍(1634.6.29.작성), 崇禎乙亥別籍 別座目(1635.09.14.작성), 崇禎后丁亥別籍 別座目(1647.11.30.작성), 崇禎后乙巳別籍 別座目(1665.10.15.작성)을 새로 추가해 집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안』에 입록된 총 9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향안과 통문안을 분리 한 것은 통문안의 기록상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전 연구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1689년에 작성된 『통문안』과 동시기 4월 3일에 편찬된 『崇禎后己巳元籍』의 내용 및 작성순서가 다수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향안과 통문안의 내용이 중복되었지만, 작성순서와 작성시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통문안은 지방양반의 의사표현 방식 중 하나인 통문에 의사를 함께하는 이들의 명단이다. 때문에 향안과는 달리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해 입록했다. 오히려 향안의 입록자를 살펴보면 향교의 청금안에서 다수로 중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향안과 통문안, 청금안을 각각 분리하되 유기적으로 인식해야만 향촌사회를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건이었다. 때문에 향안의 입록은 곧 이 지역 양반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하였다. 이는 임실현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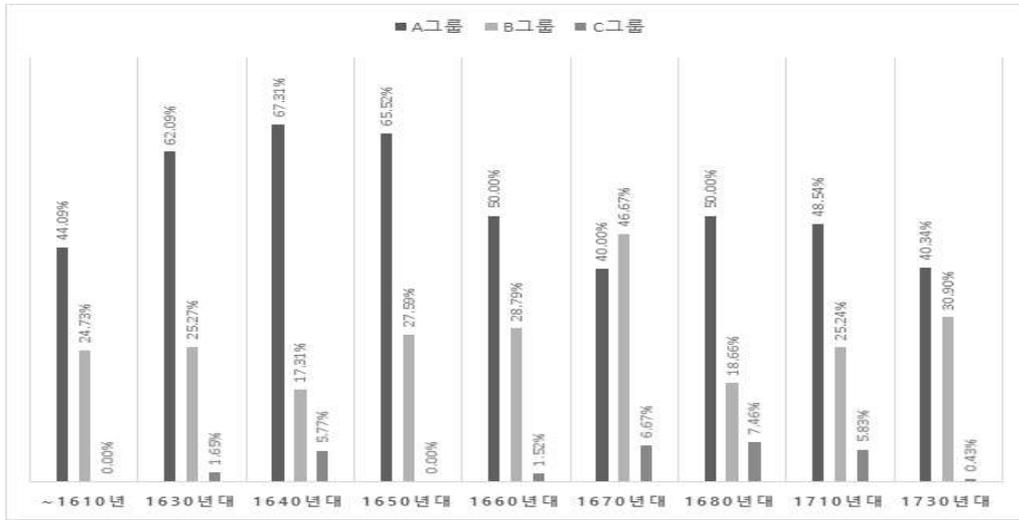
〈표3-1〉 『임실향안』 입록자 성씨별 분포\* (단위 : %)

분류	성씨	~1610 년대	1630 년대	1640 년대	1650 년대	1660 년대	1670 년대	1680 년대	1710 년대	1730 년대	합계
A 그룹 (5개)	청주 한	8.60	14.29	15.38	20.69	13.64	10.00	6.72	21.36	11.16	12.69
	함양 박	11.83	13.74	17.31	24.14	4.55	16.67	9.70	0.97	7.73	9.98
	현풍 곽	10.75	14.29	1.92	3.45	10.61	0.00	0.00	19.42	9.87	9.54
	전주 이	12.90	13.74	25.00	17.24	10.61	3.33	5.97	6.80	4.29	9.54
	여산 송	0.00	6.04	7.69	0.00	10.61	10.00	27.61	0.00	7.30	8.57
	(소계)	44.09	62.09	67.31	65.52	50.00	40.00	50.00	48.54	40.34	50.33
B 그룹 (10 개)	풍산 심	0.00	2.75	3.85	0.00	7.58	10.00	8.21	0.00	5.15	4.12
	남양 홍	6.45	2.75	0.00	0.00	4.55	0.00	0.00	8.74	5.15	3.80
	순창 설	8.60	4.95	0.00	10.34	0.00	10.00	1.49	0.00	3.86	3.69
	연안 김	1.08	2.20	3.85	0.00	3.03	6.67	4.48	6.80	2.15	3.15
	전주 최	2.15	4.40	1.92	3.45	6.06	0.00	0.00	3.88	2.58	2.82
	남원 윤	1.08	1.65	1.92	3.45	1.52	6.67	3.73	0.00	4.72	2.71
	전주 유	0.00	0.00	0.00	3.45	1.52	3.33	0.75	5.83	5.15	2.39
	천안 전	2.15	1.65	5.77	3.45	3.03	0.00	0.00	0.00	0.43	1.30
	경주 이	0.00	4.95	0.00	0.00	0.00	6.67	0.00	0.00	0.00	1.19
	함양 오	3.23	0.00	0.00	3.45	1.52	3.33	0.00	0.00	1.72	1.08
(소계)	24.73	25.27	17.31	27.59	28.79	46.67	18.66	25.24	30.90	26.25	
C 그룹 (9개)	(소계)	0.00	1.65	5.77	0.00	1.52	6.67	7.46	5.83	0.43	2.81
본관불명		31.18	10.99	9.62	6.90	19.70	6.67	23.88	20.39	28.33	20.61
합계		10.09	19.74	5.64	3.15	7.16	3.25	14.53	11.17	25.27	100

- 본 표는 시기별 입록자 수 대비 성관별 입록자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 시기구분은 10년을 단위로 해당시기 작성된 『향안』을 종합적으로 구분
- A그룹: 성씨별 합계 백분율 5%이상 / B그룹: 1%이상 ~ 5%미만 / C그룹: 1%미만
- A그룹은 향안입록을 주도한 유력성씨로 규정할 수 있다.

39) 정진영. (1988). “조선 전기 안동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p63

〈그림3-1〉 『임실향안』 입록성씨의 그룹별 추이 (단위 : %)



〈표3-1〉은 향안이 작성되는 1599년부터 1736년까지의 입록자 추이를 시기별, 성씨별로 통산한 것이며, 〈그림3-1〉은 〈표3-1〉에서 구분한 A~C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향안에 등장하는 입록자는 총 923명이며, 24개의 성씨로 구성되었다. 본고에서는 23건의 향안을 작성연대에 따라 구분했다. 본 자료는 137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작성되었다. 다만 작성이 이루어진 시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향안의 입록자는 10년을 기준으로 대체로 중복되어 나타났다으며, 이후 10년 동안 작성된 향안에서는 이전 시기 입록자의 다음세대를 중심으로 입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1599년~1607년의 입록자 수는 93명이었다.<sup>40)</sup> 이 시기는 향청(鄉廳)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입록 성씨도 다른 시기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향안에 등장하는 총 24개 성씨 중 이 시기에 등장한 성씨는 11개였다. 이들 대부분은 향안이 작성되는 전(全) 시기에 걸쳐 다수의 입록성씨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3-1〉에 따르면 이때부터 A그룹 소속 성씨의 입록 비율은 다른 B,C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A그룹의 입록 주도 양상은 이후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40) 향안입록자의 추이는 본관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계하였다. 『임실향안』에는 성과 함께 본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입록자 922명 중에서 본관이 불명인 경우는 총 190명으로 나타난다.

1634년~1636년 향안에서는 이전 시기부터 A그룹으로 분류되었던 성씨들의 입록자 수가 18%p 증폭했다. 특히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여산 송씨는 향안입록과 동시에 A그룹에 포함될 수 있었다. 반면 B그룹 성씨에서는 일부 새로운 성씨가 추가되었고, 입록 비율은 이전시기에 비해 약 0.5%p정도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1630년대 향안에서는 A그룹 소속 성씨가 대폭 확대되어 두 그룹간의 격차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이의 변화는 향안조직이 1630년대에서 크게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양반사회 전체의 확장을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A그룹 참여 성씨의 다양화와 향안 입록자 수의 확대만을 의미했다.

한편 다음 시기를 거치면서 향안 입록비율은 A그룹 성씨로 더욱 집중했다. 1646년~1647년 향안 입록자 수는 이전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sup>41)</sup> 등장하는 성씨 역시 이전 16개에서 11개로 축소되었다. 이와는 달리 'A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5.22%p 증가했다. 실제로 이 시기 A그룹 성씨가 동시기 향안 입록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31%에 달했다. 반면, B그룹의 경우 약 8%p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은 1650년대에도 지속되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 향안 입록자는 29명으로 더욱 축소되었으나 A그룹의 비율은 여전히 65.52%에 달했다. 특히 이 시기 A그룹의 입록은 청주 한씨와 함양 박씨, 전주 이씨에만 한정되어 양반사회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반사회의 운영이 특정의 유력성씨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이 향안의 작성이 시작한 시기부터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1665년~1666년 향안에서는 A그룹 내에서 직전의 상황과 반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던 청주 한씨의 입록자가 7.0%p만큼 감소했으며, 함양 박씨의 경우 19.6%p 만큼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현풍 곽씨는 1650년대 3.45%에서 10.61%로 다시금 부상했고, 여산 송씨와 풍산 심씨가 새로이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다.

반면 B그룹의 경우 1650년대 약 10%p 가까이 증가한 후 이 시기까지 수치를 유지했다. 이때의 수치는 향안작성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향안작성이 중지되

---

41) 1630년대 작성된 향안의 총 입록자는 182명이었다. 그러나 1640년대에는 2차례에 걸쳐 향안이 작성되었으나, 입록인원은 5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는 시기까지 특정시기를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A그룹 내에서는 확대와 감소양상을 보인 반면, B그룹은 1640년대, 1680년대를 제외하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1660년대의 상황은 1674년 향안에서도 지속되었다. 청주 한씨는 3.64%p 감소해 10%를, 전주 이씨의 입록자 수는 7.28%p만큼 감소해 3.33%를 기록했다. 반면, 여산 송씨와 풍산 심씨는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해 청주 한씨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이 시기 B그룹의 입록 비율은 A그룹의 비율 40%보다 많은 46.67%에 달해 이전시기에 비해 17.88%p 대폭 증가했다. 양반사회 운영에 있어 이전 시기까지 나타났던 A그룹의 주도양상이 점차 완화되고 향안입록을 주도했던 성씨가 여산 송씨와 B그룹 성씨를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674년 향안부터 다음 시기인 1689년 향안에 나타나는 여산 송씨와 A그룹 소속 다른 유력성씨와의 관계이다.

1689년에 작성된 향안에서는 A그룹 성씨의 향안주도 양상이 다시금 나타난 반면(50%), B그룹의 입록비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28.01%p 크게 감소했다. 다만 이 시기 특기할 점은 이전시기와 달리, 여산 송씨가 최대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다는 것이었다.(27.61%) 반면, A그룹 소속 다른 성씨의 입록비율은 약 5~9%대로 여산 송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가운데, 이 시기 향안에서는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특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안의 입록자를 2향(鄉)과 3향(鄉)으로 구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다. 2향과 3향의 구분은 곧 향안 입록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기준으로는 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중 본향(本鄉)에서 거주하고, 양반사회에 참여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적용되었다.<sup>42)</sup>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곧 향안 입록 과정에서 입록자의 범위를 점차 제한했음을 의미했다.

여산 송씨는 17세기 후반 향안에서 2향과 3향으로 구분한 인원 중 39%에 달했다. 당시의 향안입록 과정에서 여산 송씨를 중심으로 다른 성씨와의 ‘구분 짓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sup>43)</sup> 이러한 양상은 같은 해에 작성된 또 다른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42) 정진영, (1988). 『앞의 책』, 참조

43) 17세기 후반 『임실향안』의 2향, 3향 구분 양상은 <부표4> 참조.

2향, 3향의 구분이 이루어졌던 1689년에는 총 3개의 향안이 작성되었다.<sup>44)</sup> 이 3개 향안의 입록자는 일부 중복되지만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했으며, 다수로 입록된 성씨도 각각 달랐다. ‘1689.04.03.향안’에는 여산 송씨와 전주 이씨가 다수 등장했고, 대부분의 인물이 2향과 3향으로 구분되었다. 이곳에 입록한 인물 39명 중에서 31명은 同月 20일에 작성된 향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1689.04.20.향안’은 ‘1689.04.03.향안’에서처럼 2향과 3향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소수만이 입록했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연안 김씨와 풍산 심씨가 다수 등장했다. 그리고 ‘1689.09.11.향안’에서는 여산 송씨가 등장하지 않는 반면, 이전까지 유력성씨로 분류되었던 청주 한씨, 함양 박씨가 다수 입록했다. 이때 연안 김씨와 풍산 심씨도 함께 등장했다.

이처럼 1689년에 작성된 3개의 향안에서는 2향, 3향의 구분을 둘러싸고 형성된 각 입록 성씨 간의 미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689년의 임실현 양반사회는 여산 송씨와 전주 이씨의 주도로 형성, 운영되었으나, 이들의 주도권은 같은 해 9월 청주 한씨, 함양 박씨, 풍산 심씨, 연안 김씨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향안이 전체적으로 소수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특정 시기에는 유력성씨 내에서도 향안입록을 둘러싼 일종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향안 입록을 주도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향촌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을 보전하기 위한 자체적인 ‘구분 짓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 폐쇄적인 형태로 변화했던 것이다.<sup>45)</sup>

다만 향안입록을 둘러싼 경쟁에서 뒤쳐진 것이 곧 향안조직에서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3-1>에 따르면 여산 송씨는 18세기 초반 향안에서 A그룹 소속 성씨 중 하나로 많은 입록자를 배출했다. 아울러 1789년(정조 13) 청주 한씨의 사당인 신안사에 여산 송씨의 인물이 배향되었다.<sup>46)</sup> 이처럼

44) 崇禎后己巳元籍의 경우 1689년 4월 3일과 1689년 4월 20일에 작성된 것과 1689년 9월 11일에 작성된 것으로 구분된다. 입록한 인원 수는 각각 39명, 58명, 37명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편의상 ‘1689.04.03.향안’, ‘1689.04.20.향안’, ‘1689.09.11.향안’으로 지칭한다.

45) 다수의 여산 송씨가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향안에 입록하게 된 계기와 9월 11일 향안에서는 이러한 여산 송씨가 전혀 등장하지 않은 계기는 자료의 한계 상 파악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밝혀져야만 1689년을 중심으로 임실현 양반사회 내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으며, 그 상황이 양반사회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 1588년(선조 21년)에 건립된 신안사는 본래 청주 한씨의 입향조 韓好謙의 사우였으나 정유재란 당시 파괴되었다. 이후 정조 13년에 본 사당을 재건하면서 여산 송씨가 함께 배향되었다.

여산 송씨는 1689년 이후에도 향안과 더불어 향촌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임실현 향촌사회에서의 유력한 지방양반들이 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그들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1689년 향안으로부터 19년 후에 작성되는 1718년의 향안에서는 청주 한씨가 21.36%로 최대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다. 여산 송씨는 전혀 입록하지 않았던 반면, 청주 한씨가 입록자의 주류를 이루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청주 한씨와 함께 현풍 곽씨가 다수로 등장했다. 이때 현풍 곽씨는 청주 한씨보다 조금 낮은 19.42%를 기록했다. 이러한 경향은 10여년 후인 1730년~1736년 향안에서 다소 순화되어 나타났다. 청주 한씨와 현풍 곽씨는 1718년에 비해 10%p가량 줄었으나, 대신 함양 박씨와 여산 송씨, 풍산 심씨가 다시금 등장하였다. 입록자의 비율도 각 성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B그룹과 C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A그룹의 비율보다 높은 전체의 54%에 달했다.

그러나 1730년대 향안에서 B, C 그룹의 입록 비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입록을 주도했던 기존 세력의 주도권이 약화된 것으로 바라볼 수 없다. <표3-1>에서 B 그룹에 속하는 성씨는 다양해지고, 입록 비율 또한 상승한 반면, C그룹의 성씨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때 B그룹에 속하는 성씨는 향안 작성이 시작할 때부터 입록자를 꾸준히 배출했다.<sup>47)</sup> B그룹의 입록비율이 이 시기 향안에서 증가했다는 점은 곧 향청운영에 참여하는 성씨가 기존의 유력성씨보다 확장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때의 확장은 향권을 둘러싼 새로운 세력의 유입이 아닌, 오히려 기존부터 존재했던 B그룹 성씨의 참여가 확대된 결과였다.

지금까지 향안이 작성되었던 17세기~18세기 초, 『임실향안』의 입록추이를 통해 임실현의 양반사회와 향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위 분석을 통해 『임실향안』의 작성은 대체로 A그룹으로 분류한 일부 유력성씨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었다.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입록을 주도

---

47) 여기에서 B그룹으로 분류된 성씨 중에는 대표적으로 ‘순창 설, 전주 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향안 입록은 앞선 다수성관에 비해 현저히 적으나, 그럼에도 극소수만을 향안에 입록시킨 C그룹 성씨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순창 설씨의 경우 17세기 후반 10% 가까이 입록자를 배출했다. 또한 순창 설씨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향임을 수행하였다. 이로보아 이들은 기존 A그룹 소속 유력성씨가 주도했던 향권에 새롭게 도전하는 세력이 아닌, 이들과 연관되어 향촌사회를 주도에 참여했던 기존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했던 성씨들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향안 입록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 간혹 최다 입록 성씨가 변화하고, 특정 시기에 한해 일부 성씨를 중심으로 향안 입록에 대한 일종의 ‘구분짓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결국 17세기부터 등장한 소수의 성씨그룹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부 소수의 유력성씨가 양반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은 18세기~19세기에 도 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임실현의 양반들은 향안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 향교가 지니는 위상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발휘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임실향교 『청금안(靑衿案)』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수 유력성씨가 주도하는 이 지역 양반사회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다.

## 제 2 절 『任實 靑衿案』에 나타나는 18~19세기 양반사회의 운영양상

### 1) 임실향교와 『任實 靑衿案』의 작성

지방사회에서 향교는 양반층의 권위를 대변하는 공간이었다. 지방양반들은 향교에 공자를 비롯한 성리학 명현의 위패를 배향하고 매년 봄, 가을마다 석전제(釋尊祭)를 실시했다. 이러한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현에 대한 제사행위를 통해 성리학적 가치로 지방사회의 교화를 담당하는 교화의 주체로 거듭났다. 이외에도 향교에서는 강학활동을 통해 향촌사회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동시에 지역 양반들 간의 공론을 형성했다.<sup>48)</sup>

다수의 연구에서는 18세기 이후 서원의 증설과 향교 내 일반 교생수의 증가로 인한 지방양반들의 기피로 향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sup>49)</sup>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향교가 지방 양반층의 신분적 권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대변하는 곳으로 기능을 유지했다. 이는 ‘임실향교(任實鄉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임실향교에서는 1671년(현종12)부터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향교

48) 강대민. (1992). 『앞의 책』. 참조

49) 윤희면. (1990). 『朝鮮後期 鄉校研究』. 서울:일조각.

50) 임실향교는 1413년(태종 13)에 창건되어 임실지역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였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일부 소실되었으나 1853년(철종 5) 현감 김성근(金性根)이 부임하면서 대성전을 중건하였고, 1869년(고종 6)에 현감 원세철(元世澈) 때 명륜당이 중수되었다. 향교를 운영하였던 이들은 재장(齋長) 1인, 장의(掌議) 2인, 색장(色掌) 2인, 집사(執事) 8인, 교노(校奴) 6인으

출입 양반들의 명부인 『청금안(靑衿案)』을 작성했다. 이 기록을 통해 임실현 양반사회에서 향교가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향교에서는 교임을 역임한 지방양반의 명부로 청금안을 작성했다. 조선후기 지방양반들은 과거응시의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이곳에 입록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은 지방사회에서 향촌운영과 지방민 교화의 주체로서 위상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향교 교임을 역임해야만 했고, 교임의 명부인 청금안의 입록을 필요로 했다. 결국 청금안은 향교에 출입하는 양반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지방사회에서 청금유생과 지방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했다.<sup>51)</sup>

임실향교 역시 이러한 의도 하에 청금안을 작성했다. 『임실현 청금안(이하 청금안)』은 ‘재장’ ‘장의’ ‘색장’으로 구성되는 임실향교 교임의 명부로서, 향교 내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기록의 작성 시기는 본 자료의 서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래 청금안은 1671년(현종 12)부터 작성되기 시작했으나, 1827년(순조 27)까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1842년(철종 8)에 새로 작성하였고, 이것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sup>52)</sup>

청금안은 1년 단위로 작성되어, 그해 校任을 담당했던 이들의 성명과, 직명, 휘호, 본관 등의 신상내용과 입록자의 가족관계 및 현조(顯祖)를 명시했다. 『임실향안』에 비해 가족관계를 자세히 명시해놓고 있어 교임을 선출하는 데에 지방사회에서의 연고(緣故)가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방에서의 연고와 입록자의 가족관계 이외에도, 청금안의 입록과 교임의 선출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금안 구안(舊案)의 범례에 따르면 ‘재장(齋長)과 교임(校任)은 향중에서 지벌(地閥)과 문망(文望)이 있어 뛰어난 구성원으로 뽑고 만약 혹여 사적인 관계에 구애받아 차출된 자는 재회(齊會)에서 죄를 논의하여 개체(改遞)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53)</sup> 이 기준에 따르면 청금안에 입록되는 재장과 그 외의 교임은 지방사회에서 문벌이 높거나 지방양

---

로 구성되었다.(『雲水誌』 鄉校. 鄉校在縣北一里勝覽云在縣西一里. 正殿三間子坐咸豐甲寅金候性根時重修光緒己卯具候然翼時重修明倫堂五間同治己巳元候世澈修補. (중략) 齋長一員掌議二員色掌二員執事八人校奴時存六名.)

51) 윤희면. (1989). “朝鮮後期 鄉校의 靑衿儒生”. 『東亞研究』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52) 『靑衿案』 舊案序. “靑衿錄舊案則始自顯廟十二年辛亥至純廟二十七年丁亥一百五十七年而其無傳焉不可放其後則別成新案矣是案也.”

53) 『靑衿案』 舊案節目. “齋長與校任鄉中有地閥有文望可堪之員薦出而若或抱私案薦者自齋會所論罪改遞事.”

반 중 문망이 높은 자에 한해 역임할 수 있었다.

교임선출의 조건은 청금안 신안(新案)의 범례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범례의 내용에 따르면 재장을 선출할 때에는 고령이면서 동시에 ‘명망이 있고 행실이 바른 자’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재장으로 나타난 인물들은 평균 64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의 인물이 역임했다.

제향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의(掌議)는 재장보다 연령은 낮으면서 글쓰기와 예법에 능한 자에 한해 임명되었다. 교임의 차임격(次任格)에 해당하는 장의는 향교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관리자였다. 특히 강학기능이 희미해지는 향교에서 장의는 문묘제향의 실무를 담당했다.<sup>54)</sup> 이러한 직무 특성상 제향의 실무를 담당하는 장의에게서 글쓰기 능력과 예법이 중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임 중에서 장의를 도와 제향의 실무를 보조하고 향교의 살림을 관장하는 색장(色掌)은 장의에 비해 연령이 낮으면서 언행이 바른 자에 한해 임명했다. 색장은 교임 중 말단직임으로써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고, 도서의 보관과 향교에 출입하는 양반의 공궤를 담당했다. 실제로 범례에 따르면 제향물품을 보관하는 궤자(櫃子)의 열쇠와 향교 재정의 출납을 밝힌 부기(簿記)를 수(首)색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sup>55)</sup>

한편 청금안의 제일 하단에는 서재교생(西齋校生)의 직임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본임(本任)과 성명이 명시되어있다. 동재유생의 교임이 명시되어있는 부분의 아래에 위치하며 직명과 성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직명은 典祀, 過年, 文色, 元典, 典穀으로 향사(享祀)시에 각각의 역할에 따라 교임을 보좌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典穀과 典祀는 향교 소유의 전답과 제향물품을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했다.<sup>56)</sup> 향교 교임은 이러한 서재교생을 통할해 향사의 실무를 총괄하

54) 姜大敏. (1992). 『韓國의 鄕校研究』. pp 40~45

55) 『靑衿案』 新案節目. 凡例. “一. 齋長以年高聞望行修者薦出事. 一. 掌議以年少於齋長而能於文筆於儀禮行修者薦出事. 一. 色掌以年少於掌議能於言行知道禮者薦出事. 一. 齋長及掌色之任有犯邪教者懲罪改遷事. 一. 舊案但記姓諱有疑惑之歎故今則具書字號生年及其顯祖與父諱啣及子與孫某事. 一. 壽職與蔭仕及生進文武科依單入錄事. 一. 掌色一面一人式薦定或云濫於前規然使出入校宮聞禮俗言行而躬行篤實其於正風化俗庶幾有助事. 一. 櫃子開金附帶錢穀簿記首色掌掌之而新舊遞代時傳受事.”

56) 일반적으로 향교에 출입하는 이들은 동재와 서재로 구분되었다. 東齋에는 지방의 양반과 유생들이, 서재에는 서얼과 양민들이 거주하였고, 이들을 각각 동재유생(東齋儒生)과 서재교생(西齋校生)으로 명명하였다. 동재유생은 주로 교임을 맡아 향교의 운영과 享祀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반면, 서재교생은 대체로 교임의 활동을 보좌하면서 향교의 재정과 실무를 담당했다.

는 직책으로써 사실상 실무영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였다.

이상과 같이 직무가 편성되었던 교임은 1년을 단위로 청금안에 입록되었다. 임실향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향교와 마찬가지로 문묘제향을 봄과 가을 2차례 실시했다. 청금안에는 교임을 역임한 입록자가 대체로 1년 단위로 바뀌어 매해 두 차례의 향사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봄, 가을로 체임의 표시가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간혹 춘, 추 향사를 나누어 교임을 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이 경우 대체로 재장은 유지되는 반면, 장의와 색장이 체임되었다.<sup>58)</sup>

이상에서 청금안의 구성과 작성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록자의 성명과 본임, 그들의 부, 조부, 증조부와 입향조를 명시해놓고 있어 『임실향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금안의 범례를 통해 교임을 선출할 때에 地闕과 文望이 중시되었음도 확인되었다. 나아가 기록의 하단에는 매해 향사에서 실무직임을 담당했던 서재교생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은 곧 청금안이 이 지역 양반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했다. 특히 청금안에 나타난 교임은 향교운영을 총괄하고, 향사를 전담함으로써 지역 양반사회에서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직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 서술할 청금안의 입록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지방양반 사회의 구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7) 『임실현 청금안』에서는 교임직의 遞任이 있을 경우 本任과 姓名 아래에 ‘遞’와 ‘任’을 표시하였다. 체직된 자에는 ‘遞’로, 새로 임명된 자에게는 ‘任’으로 표현해 체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靑衿案』 新案의 서문에 따르면 체임의 유형은 크게 ‘喪遞’, ‘呈遞’, ‘官遞’, ‘鄉遞’, ‘自遞’로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체직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1835년부터는 다수의 기록에서 체직의 유형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과거응시 또는 관직진출로 인한 체임을 뜻하는 ‘官遞’와 향임을 수행함으로 인한 체임을 의미하는 ‘鄉遞’, 스스로 교임을 그만두는 ‘自遞’가 다수 등장했다.

58) 1774년(영조50) 『청금안』에는 재장은 나타나지 않고 장의와 색장이 8명 등장한다. 앞선 4명(장의 朴世曹 장의 郭鎮亨, 색장 韓尙一 색장 韓孝增)은 本任의 위에 ‘春’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동시에 체직된 기록이 있었다. 후에 입록된 4명(장의 趙深 장의 崔處基 색장 朴慶基 색장 李達馨)은 ‘秋’로 표현되었으며 임명된 기록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春’으로 표현되었으나 교임의 체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校任의 遞任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며 체임의 양상은 매우 다양했다.

## 2) 『任實 靑衿案』에 나타나는 양반사회의 특징

『임실 청금안』은 크게 권1, 권2, 권3으로 구분된다. 권1은 청금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1671년(현종12)부터 조선이 독자연호 사용 이전인 1895년(고종32)까지의 기록이며, 권2는 조선이 독자연호를 사용한 1896년(고종33, 建陽1)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인 1910년(隆熙4)까지의 기록, 권3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다. 본고에서는 1895년(고종32)까지의 기록인 권1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후 시기의 추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sup>59)</sup>

앞서 『임실향안』 입록자 추이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임실의 양반사회는 소수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형성,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청금안 권1에 입록된 1,188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sup>60)</sup> 아래의 <표2>는 청금안에 나타나는 校任을 30~40년 단위로 구분하여 성씨별로 집계한 것이다.<sup>61)</sup>

---

59)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지방 양반층의 존재양상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대한제국이 성립되는 시기부터는 조선후기의 지방관제가 근대적 관료주의 형태로 변화해 그에 따른 향교의 역할도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선 후기의 지방 양반층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만 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른바 근대적 국가가 성립되는 대한제국기 지방사회의 양상을 다루어 본 연구와의 연결선 상에서 향촌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60) 청금안에 나타나는 유력성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임실향교에서 영향력을 형성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임실향안이 작성되는 시기가 청금안의 작성시기와 약 70여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적어도 17세기 초반부터는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교임역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이다.

61) 청금안에는 입록자의 父, 祖父, 曾祖父, 子, 孫의 성명을 함께 적고 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한 가계에서 세대가 변화하여 다음 세대가 입록되는 기간은 대략 30~40년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청주 한씨 양절공파에 해당하는 인물 중 韓晩愈는 1683년 청금안에 처음 등장하였다. 29년 후 子 韓洪九가 입록되었고 이후 5회에 걸쳐 등장하였다. 다시 36년 후인 1744년 韓晩愈의 孫 韓明産이 입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청금안 내 다른 성관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에 입각하여 본고에서는 세대가 변화하는 30년~40년을 기준으로 初, 中, 後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표3-2〉 『임실 청금안』 입록자 성씨별 추이

(단위 : %)

구분	성관	17세기後	18세기初	18세기中	18세기後	19세기初	19세기中	19세기後	합 계	
A 그룹 8개 성씨	A-1	청주 한	14.1	21.3	9.8	9.7	12.4	8.2	13.9	12.1
		전주 이	16.4	9.9	14.1	9.7	10.0	13.4	10.2	12.0
		함양 박	7.8	10.6	9.8	4.1	7.6	4.3	5.1	6.8
		현풍 곽	12.5	5.7	10.3	6.1	7.6	3.9	2.2	6.7
		여산 송	10.2	5.7	2.2	3.6	4.7	8.7	6.6	5.8
	(소계)	60.9	53.2	46.2	33.2	42.4	38.5	38.0	43.5	
	A-2	남양 홍	4.7	3.5	9.2	6.6	4.7	8.7	7.3	6.7
		풍산 심	0.8	5.0	7.6	6.6	7.1	8.2	7.3	6.3
		남원 윤	2.3	7.1	7.1	6.6	7.6	5.2	7.3	6.2
		(소계)	7.8	15.6	23.9	19.9	19.4	22.1	21.9	19.2
	계		68.7	68.8	70.1	53.1	63.8	60.6	59.9	62.7
	B그룹 10개 성씨	전주 최	3.9	2.8	1.6	4.1	7.6	6.5	5.1	4.6
		순창 설	6.3	5.7	2.7	3.1	4.7	0.4	0.0	3.0
전주 유		3.1	2.8	2.2	4.6	1.2	2.6	1.5	2.6	
연안 김		1.6	4.3	1.1	0.5	2.9	3.9	2.9	2.4	
상산 이		1.6	2.8	4.3	2.6	0.6	0.9	2.9	2.2	
경주 이		2.3	1.4	0.5	2.6	2.9	0.4	3.6	1.9	
함양 오					1.5	3.5	3.5	2.2	1.7	
동래 정						4.7	3.9	1.5	1.6	
함안 조				0.5	3.1	0.6	0.4	4.4	1.3	
전의 이				3.3			1.3	2.9	1.1	
계		18.8	19.9	16.3	20.4	25.3	20.3	24.9	20.8	
C그룹(16개 성관)		6.3	2.8	0.0	1.0	0.0	5.6	9.5	3.4	
본관불명		5.5	7.8	10.3	12.8	7.6	10.0	2.9	8.6	
성명, 본관 불명		0.8	0.7	3.3	11.2	1.8		0.7	2.9	
합 계		10.8	11.9	15.5	16.5	14.3	19.5	11.5	100.0	

- 본 표는 각 시기별 입록자 수 대비 성씨별 입록자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임
- 시기는 30년~40년을 단위로 구분함
- A그룹: 성씨별 합계 백분율 5%이상 / B그룹: 1%이상 ~ 5%미만 / C그룹: 1%미만
- A-1은 『임실향안』에서 A그룹으로 분류된 성씨가 『청금안』에서 나타나는 입록 비율을 의미함.  
A-2는 『청금안』에서 A그룹으로 새롭게 포함된 성씨를 분류한 것임.

위 표에서 A그룹으로 분류한 8개 성씨는 청금안이 작성되는 전 시기에 걸쳐 50%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비율은 18세기 중반 최대 70.1%까지 달했다. 본관불명에 해당하는 10개 성씨 중 누씨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sup>62)</sup> 이중 포함

62) 본관불명으로 집계한 성씨는 총 10개 성관이다. 본관불명 성씨는 전체에서 8.6%(102명)를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누씨는 4.6%(55명)였다. 이들이 모두 『청금안』에 등장하는 누씨의 본관

되어 있는 전주 이씨를 고려할 때 A그룹의 성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교임이 소수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A그룹 성씨 중에서도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는 다른 성씨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교임을 수행했다. 두 성씨의 비율을 합하면 전체의 24.1%(286명)에 달하고 있어 B그룹 소속 성씨의 전체 비율(22.4%)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실현의 향교 교임이 유력성씨 중에서도 특히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성을 제외한 여타의 A그룹 성씨는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위 표에서는 향안(표1)에서부터 A그룹으로 등장했던 성씨를 'A-1'로, 청금안에서 새롭게 A그룹으로 분류된 성씨를 'A-2'로 구분했다. 이중 A-1그룹은 향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청금안 입록자의 43.5%를 차지해 다수 입록성씨로 자리했다. 17~18세기 향안에서 입록을 주도했던 소수의 유력성씨가 18~19세기 작성된 청금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A-1그룹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안에서 청주 한씨 다음으로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던 함양 박씨와 현풍 곽씨의 추이이다. 이 두 성씨는 향안에서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입록 비율을 살펴보면, 대체로 A-2그룹 성씨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때 A-2그룹에 속하는 남양 홍씨, 풍산 심씨, 남원 윤씨는 향안에서 B그룹에 속했다. 이 두 그룹 성씨의 격차는 향안에서 약 6~7%p에 달했으나, 청금안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론 특정 시기에는 두 성씨 간의 입록 비율의 격차가 심화되기도 했다.<sup>63)</sup>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는 그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일부 시기에서는 A-2그룹 성씨가 함양 박씨와 현풍 곽씨보다 더 많은 입록자를 배출했다.<sup>64)</sup> 향안의 B그룹에 속했던 일부 성씨가 청금안에서는 A그룹에 속했던 것이다. 이처럼

---

(전주, 상산, 경주, 전의) 중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전주 이씨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이 추가로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입록자 중 전주 이씨의 비율이 12.0%(142명)에서 12.8%(152명)으로 증가되어 청주 한씨보다 많은 최다 입록 성씨가 될 수 있다.

63) 청금안 내에서 A그룹 소속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치를 달했던 18세기 중반까지 함양 박, 현풍 곽씨와 풍산 심씨, 남양 홍씨, 남원 윤씨의 격차는 적게는 2%에서 최대 11%에 달했다. 반면 18세기 후반 A그룹 성씨의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청주 한, 전주 이를 제외한 다른 A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64) 18세기 후반, 함양 박씨는 4.1%, 현풍 곽씨는 6.1%의 비율을 보인 반면, 남양 홍씨, 풍산 심씨, 남원 윤씨는 모두 6.6%의 비율로 나타났다. 19세기 중, 후반에도 마찬가지로 함양 박씨와 현풍 곽씨가 더 적은 비율로 교임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금안에서는 입록을 주도했던 유력성씨의 범위가 다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A-2그룹의 세 성씨 중 남원 윤씨는 향안보다 청금안에서 많은 입록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18세기 이후부터 다수로 입록해 약 7%대를 유지했고, 전체에서는 6.2%(74명)의 입록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향안에서는 17세기 2.7%의 입록율을 보였으나, 18세기 초반에는 입록자의 수가 거의 전무했다. 남원 윤씨는 18세기를 중심으로 향교에서 다수의 교임을 배출한 반면, 향청에서는 활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곧 향안보다 청금안에서 좀더 넓은 범위의 지방양반이 그들의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향교가 향안조직의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해 조직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양반 성씨들의 활동공간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지방의 양반들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력성씨에 포함되고자 시도했다.

한편 전체 입록자 중에서 1%이상 5%미만의 입록 비율을 보였던 B그룹은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청금안에 등장하는 校任의 약 1/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실제로 B그룹에 분류된 성씨 중에는 향안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였던 성씨도 포함되어 있어 양반사회 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65)</sup> B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동시기 A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했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70%를 차지했던 A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18세기 후반 17%p 감소해 53.1%에 그쳤다. 반면 B그룹 성씨의 입록은 이전 16.3%에서 20.4%로 4.1%p 증가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향교 교임의 편중현상이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A그룹 성씨와 B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은 동시에 증가했다. 이 시기 청금안 입록자의 약 80% 이상이 A,B 그룹 성씨에 해당했고, 그 중에서도 A그룹 성씨는 60% 이상을, B그룹 성씨에서는 20% 이상을 차지했다. 19세기 향교조직에서는 소수 유력성씨의 주도권이 다시금 강화되는 동시에 주변부에 위치하였던 성씨에서도 향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

65) B그룹에 속하는 전주 최씨, 순창 설씨, 연안 김씨, 전주 유씨는 향안에서 각각 2%이상의 비율로 등장했다. A그룹 성씨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향안에 거의 입록되지 못했던 C그룹 소속 기타성씨와 비교해보면 양반사회에서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B그룹 성씨의 교임 역임비율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8세기 중반부터는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성씨들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동래 정씨, 함안 조씨, 전의 이씨가 대표적이다. 동래 정씨는 19세기 초반부터 등장해 4%대의 비율을 유지하였고, 함안 조씨와 전의 이씨는 18세기 중반부터 새롭게 입록되었다.<sup>66)</sup> 이들은 타 성관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 입록되었으나, 이들의 입록 비율은 B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했다. 이들이 향교에 등장하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청금안 내 B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이 점차 증가했고 이에 반해 A그룹 소속 성씨로의 교임집중은 다소 완화되었다. 이들의 포함으로 B그룹의 성씨가 이전 시기에 비해 향교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소수의 유력성씨에 집중했던 양반사회의 양상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할 수 없다. 이 3개의 성씨는 B그룹에 새로이 유입되었으나, 이들이 청금안에서 차지하는 입록의 비중은 여전히 미미했다. 또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청금안에 등장하는 시기인 19세기에는 A그룹 성씨의 비중이 60%대에 이르러 소수 유력성씨로 편중되는 양상이 다시금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임실지역 양반사회가 19세기에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양상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내부적으로 일부 성씨가 새롭게 등장했고 17세기에 비해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소수 유력성씨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19세기에는 여전히 A그룹 소속의 유력성씨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교임이 소수의 유력성씨로 편중되고 B그룹의 성씨에서 전체 교임 중 일부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6개의 C그룹 성씨들은 청금안에 거의 입록되지 못했다. C그룹 소속 성씨가 청금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총 3.4%로 매우 미미했다. 특히 A그룹 성씨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던 18세기 중엽과 B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18세기 후반, A그룹과 B그룹 성씨의 비율이 동시에 증가해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던 19세기 초반에는 C그룹 성씨의 입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C그룹 성씨의 비중이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소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시

66) 이러한 세 성씨가 18세기를 기점으로 청금안에 새로이 등장하는 양상은 향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함안 조씨의 경우 1730년 향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때에도 0.43%(1명)만이 입록했다. 전의 이씨는 1718년 처음 등장하여 1.94%의 비율로 입록되었다. 이처럼 새로이 B그룹으로 분류된 세 성씨가 향안에 입록하는 시기와 청금안에 나타나는 시기는 거의 유사했다.

기 청금안의 입록은 A그룹으로의 편중이 다소 완화된 반면 B그룹 성씨의 비중은 23.8%에서 27%로 3.2%p 증가했다. C그룹의 성씨는 B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이 증가한 양상과 맞물려 이전시기에 비해 3.9%p 증가해 9.5%로 나타났다.

C그룹 성씨의 입록 비율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19세기 중엽부터 청금안에 새로운 성씨가 등장한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A그룹의 성씨와 비슷하게 입향했으나, 이전 기록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성씨의 입록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sup>67)</sup> 이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성씨의 입록도 일정정도 이루어졌다.<sup>68)</sup> 이는 곧 19세기 중, 후반이 되면서 기존 양반세력에서 소외되었던 양반층 또는 새롭게 임실지역에 유입한 양반층이 향교운영에 참여하면서 청금안으로 입록할 수 있는 양반층의 범위가 확장된 것을 의미했다. 즉 교임에 임명될 수 있는 양반층이 점차 두터워졌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청금안에 나타난 임실향교의 교임(校任)이 A그룹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확인했다. 19세기까지 교임의 50% 이상이 A그룹 소속 성씨에 집중되었고, 이 외의 20%가량은 B그룹 성씨에 속하였다. 임실향교는 지극히 소수의 유력성씨와 일부 차상위 성씨에 집중되어 운영되었던 것이다. 특히 향안에서부터 입록을 주도했던 A-1그룹 성씨는 청금안에서도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세기가 되면서 다소 완화되었으나, 그룹에도 19세기까지 전체 입록자의 약 43%를 차지했다. 이들의 향권 주도에 있어 지속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A-2그룹의 성씨는 향안과 달리 청금안에서 A그룹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향안조직에서 주도 성씨로 기능하지 못했던 일부 성씨가 향교를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소수의 유력성씨가 향촌의 주도권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성씨를 중심으로 유력성씨에 포함되기 위한 일종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67) 천안 전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천안 전씨는 향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입록되었고 1635년 6월 향안부터 1666년 1월 향안 사이에 9명이 등장한 반면, 청금안에서는 18세기 후반 2명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19세기 중, 후반 4번의 기록이 나타났다.

68) 기타성관에 포함된 성관 중 교하 노, 안동 권, 개성 김, 남원 양, 진주 정, 창원 황은 19세기 중반부터 청금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 후반 이들 성관의 입록비율은 다른 성관에 비해 미미한 정도이나 새로운 성관의 등장과 차상위 성관과 함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18세기 후반부터는 B그룹 소속 성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A그룹으로의 집중양상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폐쇄적인 특징의 향안조직과는 달리 다양한 양반층이 향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도 A그룹 소속 성씨의 교임역임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B그룹 성씨의 교임역임 비중이 증가했더라도, 여전히 교임의 다수는 A그룹에서 역임하고 있었다. 결국 청금안이 작성되는 전 시기동안 소수의 유력 성씨를 중심으로 교임의 역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임실현의 양반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주도세력의 변동양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소수의 유력성씨가 양반사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주도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이 지역 양반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소수의 유력성씨 내부에서는 향권의 지속을 위한 ‘균형’의 모습과 상호간의 끊임없는 ‘견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특정한 유력성씨에서는 양반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향권을 지속하고자 했다.

## 제 4 장 임실현 양반사회 향권(鄉權)의 동향

### 제 1 절 향임(鄉任) · 교임(校任)의 재임과 향권(鄉權)의 동향

지방사회에서 향권(鄉權)은 지방양반의 공론을 형성하고 양반사회의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였다. 향안으로의 입록 여부와 직임 선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향임을 규찰할 수 있었고 지방사회의 부세운영 방향을 수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 권한을 주도하였던 세력이 향촌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는 향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향사(享祀)를 주관하고 교임의 선출과 향교운영의 전반을 주도하는 권한이 바로 향권(鄉權)이었다. 이러한 권한은 향청에서는 향장(鄉長)과 좌수(座首), 별감(別監)에게, 향교에서는 제향을 담당하였던 교임(校任)에게 부여되었다.<sup>69)</sup> 때문에 향임과 교임의 재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사회에서 향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느 세력의 주도로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실현의 양반사회도 마찬가지로 향권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향임과 교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향안과 청금안의 입록 양상을 통해 임실현의 양반사회가 소수의 유력성관을 중심으로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사회의 지속적인 모습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였다. 실제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유력성씨들은 향권을 둘러싸고 일종의 역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향임과 교임의 역임양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69) 김현영, (1989).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한국역사연구회.

〈표4-1〉 시기별 향임, 교임 재임양상

시기 구분	① 1634-1670	② 1671-1688	③ 1689-1693	④ 1694-1717	⑤ 1718-1749	⑥ 1750-1785	⑦ 1786-1819	⑧ 1820-1846	⑨ 1847-1868	⑩ 1869-1895
시기별 특징	鄉任 등장	靑衿案 작성	2鄉, 3鄉 구분	청주 한진읍역임		전주 이진읍역임	신안사 재건	신안서원 승격		신안서원 훼손
재임 기록수	29회	78회	27회	117회	150회	185회	207회	147회	119회	130회
A그룹 (횃수)	청주한(10) 함양박(5) 전주이(4) 순창설(3) 여산송(5) 순창설(5) 남양홍(3) 남원윤(2)	현풍곽(15) 청주한(12) 전주이(12) 함양박(8) 여산송(5) 남원윤(1) 남양홍(3) 남원윤(2)	여산송(9) 전주이(8) 청주한(2) 풍산심(1) 남원윤(1) 풍산심(6) 남양홍(6) 남원윤(6) 여산송(3)	청주한(27) 함양박(16) 전주이(11) 순창설(9) 현풍곽(7) 풍산심(6) 남양홍(6) 남원윤(6) 여산송(3)	청주한(22) 전주이(18) 현풍곽(12) 함양박(11) 남양홍(11) 남원윤(9) 풍산심(7) 여산송(7) 순창설(5)	전주이(30) 청주한(16) 함양박(16) 현풍곽(16) 함양박(11) 남양홍(16) 풍산심(13) 남원윤(11) 여산송(3)	청주한(23) 풍산심(18) 함양박(16) 남원윤(16) 함양박(14) 현풍곽(16) 함양박(14) 남양홍(14) 여산송(12) 여산송(3)	전주이(31) 청주한(14) 남양홍(14) 함양박(14) 현풍곽(10) 전주이(10) 남원윤(9) 남양홍(8) 풍산심(8) 여산송(8)	풍산심(13) 청주한(12) 남양홍(12) 전주이(10) 여산송(10) 남원윤(7) 현풍곽(5) 함양박(4)	청주한(20) 전주이(15) 남양홍(10) 여산송(10) 남원윤(10) 풍산심(9) 함양박(7) 현풍곽(3)
B/C 그룹 (횃수)/ 성씨 수	B(4) 3개성 C(2) 1개성	B(8) 4개성 C(5) 3개성	B(3) 3개성 C(1) 1개성	B(14) 4개성 C(3) 1개성	B(23) 7개성 C(3) 2개성	B(27) 8개성 C(3) 2개성	B(49) 8개성 C(3) 3개성	B(25) 6개성 C(4) 4개성	B(39) 8개성 C(8) 5개성	B(39) 9개성 C(12) 8개성

-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성씨가 향임, 교임을 역임한 횃수.
- 향임과 교임의 재임횃수는 주요직임에 한해서만 집계.  
鄉任 : 鄉長, 座首, 別監, 掌議 / 校任 : 齋長, 掌議, 色掌
- 1599년~1633년은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기록상 특정의 향임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표에서 제외하였다.

〈표4-1〉은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향청, 향교 주요직임의 재임 횃수를 성씨별로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 위 표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이 시기 임실현 양반사회의 향권은 앞서 향안과 청금안에서 A그룹에 속한 유력성씨 중에서도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에 집중되었다. 두 성씨가 압도적인 횃수로 향권을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여타의 유력성씨 사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향청과 향교의 주요직임이 특정 성씨에 독점되는 양상은 1689년 이후부터 발생했다. 특히 이 시기 이후부터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가 서로 교차하며 주요직임을 독점했다. 이 과정에서 두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유력성씨가 분리했고, 독점하는 대성에 따라서 동시기 향임과 교임을 역임하는 성씨도 변화했다. 대체로 청주 한씨 계열에는 함양 박, 풍산 심, 남원 윤이 해당했고, 전주 이씨 계열에는 현풍 곽, 남양 홍이 포함되었다. 여산 송씨는 두 대성(大姓)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을 달리했다.

임실지역에서 양반사회가 형성되는 시기였던 1599년과 1607년의 향안에는 현풍 곽, 함양 박, 전주 이, 순창 설씨가 중심이 되어 입록되었다. 이때 등장한 성씨는 사실상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향촌사회 운영에 다수 참여하였던 성씨였다. 다만 청주 한씨는 다른 성씨에 비해 다소 적은 인원을 입록하고 있어,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주도 성씨로서 세력을 성장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 두 성의 독점양상이 이 시기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대성(大姓)의 향권 주도 양상이 나타났다. 1634년~1670년(①)에 청주 한씨는 가장 많은 수로 향임을 역임했다. ①의 시기는 앞의 서술에서 양반사회가 확장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이 시기에 들어 청주 한씨는 갑작스럽게 부상했으며, 동시에 향권을 주도하는 성관으로 위치했다. 이때 이후 청주 한씨는 19세기까지의 대부분 시기에서 양반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671년에는 향교에서 청금안이 작성되기 시작했다.(②) 이때의 향임은 청주 한씨와 풍산 심씨에서 재임 중이었고, 다른 성관들은 향교에서 교임을 역임함으로써 향촌운영에 참여했다.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전까지 향임을 역임하지 않았던 현풍 곽씨가 향교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로 교임을 재임했던 점이다. 이때 현풍 곽씨는 ‘장의’를 총 9회 역임했다.<sup>70)</sup> 반면

70) 『임실현 청금안』에서 교임의 수장격인 재장(齋長)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762년부터였다. 이전까지는 임실현감(任實縣監)이 齋長의 역할을 함께 겸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안조직이 유지되고 있었던 1736년까지는 鄕長이 양반 사회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교에서는 별도의 양반을 대표하는 직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향교에는 실무담당자인 장의와 그를 보좌할 색장만을 두었고, 총괄하는 직임은 현감이 대신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한씨는 4회, 전주 이씨는 6회만을 기록했다. 일부 성씨에 한해 향권이 향청과 향교에서 별도로 형성, 작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함양 박씨, 여산 송씨, 남양 홍씨, 남원 윤씨 등은 이 시기부터 향교 교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양반사회의 운영에 더 다양한 성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현풍 곽, 전주 이, 청주 한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성씨의 향임, 교임 역임횟수는 적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곧 이후 두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향권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1689년부터 1693년(③)까지의 시기에서는 거의 전 시기에 나타나는 대성(大姓)위주의 향권 동향 중 돌발적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전시기까지 유력 성씨 중에서 소수의 입록자와 직임 역임자를 배출했던 여산 송씨가 최대 다수로 향임과 교임을 역임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기 여산 송씨는 향안에서 압도적으로 입록자를 배출하였으며, 향안 입록자에 대한 ‘구분짓기’를 통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때의 ‘구분짓기’는 사실상 여산 송씨를 중심으로 양반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1689년 이전, 이후시기를 통틀어 이 시기 여산 송씨는 유일하게 최대의 다수성씨로 양반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때문에 이들은 향권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이에 여산 송씨는 향촌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전주 이씨와 연계해 향촌조직을 운영했고, 이 연계를 바탕으로 향안에서 다른 성관과의 구분짓기를 시도했다. 여산 송씨의 이러한 향권유지 의도는 향교의 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89년 이전까지는 청주 한, 전주 이, 함양 박, 현풍 곽 4개의 성이 교차적으로 교임을 역임했던 반면 여산 송씨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689년 4월에 작성된 2건의 향안에서 ‘송간(宋玠)’이 향장을 역임하고 그의 후손들이 대거 입록하면서 향교의 교임 또한 송간의 후손들이 주도적으로 역임했다.<sup>71)</sup>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산 송씨는 향권 주도를 위해 전주 이씨와 연계했다. 이 시기 향장은 여산 송씨, 좌수는 전주 이씨가 재임했고, 교임도 두 성관이 동

---

71) 이 시기 청금안에서 여산 송씨는 5번의 掌議와 4번의 色掌을 역임했는데, 이는 이 시기 직임 기록 27건 중 33%에 해당했다. 이때 교임을 역임하였던 이들은 대부분 동시기 향안에서도 입록하고 있어, 이 시기 여산 송씨가 향안조직과 향교를 동시에 주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주 이씨 역시 8회 등장하고 있어, 이들의 주도권은 전주 이씨와 함께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에 장의와 색장을 역임했다. 반면 청주 한씨와 그 외의 성씨에서는 직임을 거의 역임하지 못했다. 1689년 이후의 향권은 전주 이씨와 여산 송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산 송씨와 전주 이씨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방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1689년부터 1693년까지 나타난 향권을 둘러싼 돌발적인 양상은 1694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대성(大姓)위주의 양상으로 회귀했다.(④) 특히 청주 한씨는 이 시기부터 1718년 향안이 작성되기 이전까지 향권을 독점했다. 1689년 향안에서 나타난 지방양반의 분화양상이 1694년이 되면서 청주 한씨가 직임을 독점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24년 동안에는 이전까지 10년을 주기로 작성되었던 향안이 작성되지 않고 있어, 양반사회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694년 이후 형성된 청주 한씨 주도의 양반사회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 향교기록을 살펴보면 청주 한씨는 교임을 역임하는 것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동시에 함양 박, 풍산 심, 남원 윤씨 역시 교임에 다수 재임했다. 이 세 성씨는 여산 송씨, 전주 이씨의 향안과 분화되어 별도로 제작되었던 1689년 9월 향안에서 청주 한씨와 함께 입록했던 성씨였다.<sup>72)</sup> 청주 한씨가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 3개 성씨도 향촌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했던 것이다.

반면, 이전시기 향권을 주도하였던 여산 송씨는 이 시기 교임을 거의 역임하지 못하였고, 전주 이씨의 직임역임은 이전시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1689년 시기(③)에는 전주 이씨가 직임기록의 30%를 차지한 반면, 청주 한씨가 주도하는 이 시기(④)에는 9%로 급감했다. 이처럼 1689년 이후의 향권은 청주 한씨와 3개의 성관으로 집중되었다. 유력 성씨 내에서의 그룹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화 경향이 곧 특정 집단의 향권 전제(專制)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여산 송씨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교임에 재임했으나 전주 이씨는 11번의 역임횟수로 전체의 세 번째에 해당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역임횟수는 급감했으나, 그럼에도 일정정도 직임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때와

---

72) 1689년 4월 3일과 4월 20일 향안에서 여산 송씨는 각각 19회, 18회 입록했고, 전주 이씨는 8회와 7회를 입록하였다. 대신 청주 한씨는 총합 1회, 함양 박씨는 2회, 풍산 심씨는 4회 등장하였다. 동년 9월 향안에서는 4월에 작성된 향안과는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산 송, 전주 이의 두 성관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청주 한씨가 7회, 함양 박 9회, 풍산 심 6회 나타났다. 향안입록을 둘러싸고 유력성씨 내에서의 구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이후의 시기에도 그해의 교임이 특정 그룹에 완전히 치중되어 다른 계열의 성씨가 직임을 역임하지 못했던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교임의 구성을 장의 2명, 색장 2명으로 전제할 때 대체로 3개의 직임은 하나의 대성과 그 계열에서 차정(差定)했지만, 다른 하나의 직임은 반대계열에 속하는 성씨에서 역임했다. 지방사회의 향권을 둘러싼 특정 성관의 전유(專有)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청주 한씨가 향권을 주도하였던 ④시기 역시 전주 이씨가 직임을 역임함으로써 일정의 견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향권은 특정성관이 전유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계열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록 유력성씨 내부에서는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분화되었으나, 향권은 분화된 특정계열을 중심으로 독점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청주 한씨가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은 1718년 향안이 작성되던 시기부터 1749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전주 이씨와 같은 계열의 일부 성씨가 부상해 직임의 역임이 청주 한씨 계열과 전주 이씨 계열로 양분되었다.<sup>73)</sup> 청주 한씨가 22회, 전주 이씨가 18회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직임을 역임했으며, 주도하는 대성(大姓)에 따라 다른 직임이 차정되었다.

이처럼 청주 한씨와 그 계열의 성관이 주도하였던 향권 구조는 1750년을 기점으로 전주 이씨 계열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⑥) 전주 이씨는 총 30회의 역임횟수를 보여 압도적으로 직임을 역임한 반면 청주 한씨는 17회에 그쳐 두 대성(大姓)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전주 이씨가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같은 계열이었던 현풍 곽씨와 남양 홍씨는 이전 시기보다 역임횟수가 증가하였다. 전주 이씨 계열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다음 시기인 1786년부터 1819년(⑦) 향권의 주도권은 다시금 청주 한씨 계열 성관으로 이행(移行)했다. 전주 이씨는 12번의 역임기록을 보인 반면 청주 한씨에서는 약 2배의 가까운 23번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전 시기까지는

---

73) 전주 이씨와 여산 송씨는 1689년 향안에서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1718년 이후부터는 현풍 곽, 남양 홍씨와의 연계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718년 향안에서 전주 이씨는 남양 홍씨와 각각 향장과 좌수를 역임한다. 1726년, 1735년, 1739년, 1740년 청금안에서는 장의와 색장을 전주 이, 남양 홍, 현풍 곽이 전담하였다. 이외의 다수의 시기에도 3개 성관 중 두개의 성씨가 함께 등장했다. 이를 통해 전주 이, 현풍 곽, 여산 송, 남양 홍의 유기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수치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청주 한씨 그룹의 풍산 심씨가 대거 교임을 역임하여 전주 이씨보다 많은 18회로 나타났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여산 송씨의 교임 역임이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데, 대체로 이들의 교임 역임은 청주 한씨나 그 계열 소속의 성씨에서 재장을 역임할 때 이루어졌다.<sup>74)</sup> 전주 이씨 계열에서 재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에도 여산 송씨는 청주 한씨와 함께 장의와 색장을 역임했다.<sup>75)</sup>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두 성관의 연계는 1787년 청주 한씨의 사당인 ‘신안사’에 여산 송씨의 현조를 배향하는 점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청주 한씨, 여산 송씨 두 성관의 연계는 1820년 ‘신안사(新安祠)’에 주자(朱子)를 배향하고 서원으로 승격하면서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1820년부터 1846년까지(⑧) 27년간 전주 이씨는 교임을 31회 재임했다. 대신 전주 이씨 계열이었던 현풍 곽씨와 남양 홍씨의 역임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청주 한씨는 전주 이씨에 크게 못 미치는 14번의 기록을 보였다. 19세기에 들어 전주 이씨 중심의 교임 독점양상이 강해진 반면, 성씨분리에 따른 계열화가 희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원 승격 이전(⑧)까지 청주 한씨의 계열과 함께 교임을 역임했던 여산 송씨는 서원건립 이후인 이 시기에 들어 전주 이씨와 양상을 같이했다.<sup>76)</sup> 청주 한씨가 신안사를 중심으로 주자를 배향하고 서원을 형성함으로써 지방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함에 따라 여산 송씨와의 연계가 불필요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여산 송씨는 청주 한씨 대신 전주 이씨, 남양 홍씨와 함께 향교운영에 참여했으며, 청주 한, 함양 박씨가 재장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전주 이씨와 함께 장의와 색장을 역임하였다.

74) 1787년 재장은 청주 한씨였으며, 장의에는 같은 계열인 순창 설씨, 함양 박씨였다. 이때 색장은 한 차례 체임이 이루어졌는데, 체임 전, 후로 여산 송씨가 등장했다. 또한 1790년에는 재장이 현풍 곽씨에서 풍산 심씨로 체임하였는데, 이때 장의로는 여산 송씨와 현풍 곽씨가 있었으며 색장에 함양 박씨와 청주 한씨가 재임했다. 이외에도 1793년, 1802년, 1807년, 1818년에도 청주 한씨 계열의 성관과 함께 교임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5) 1807년의 경우 재장은 춘에는 남양 홍씨가, 가을에는 함양 박씨가 역임하였다. 이때는 장의와 색장의 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때 장의는 청주 한씨 계열인 풍산 심씨와 여산 송씨, 색장에는 청주 한씨와 순창 설씨였다. 1810년의 경우에도 재장은 전주 이씨였으나 장의가 함양 박씨였고, 색장은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였다.

76) 1825년 재장은 남양 홍씨였으며 장의는 여산 송씨와 전주 이씨였다. 1828년에는 함양 박씨가 재장인 반면, 장의는 마찬가지로 여산 송씨와 전주 이씨가 함께 나타났다. 1838년에는 재장이 전주 이씨에서 남양 홍씨로 체임되었는데, 이때 장의는 전주 이씨와 여산 송씨로 체임되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 밖의 다수 시기에서 전주 이씨 계열의 성관과 함께 여산 송씨가 등장했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향권의 분배에 관한 점이다. 청주 한씨는 신안서원을 중심으로 활동무대를 변경함에 따라 향교운영에서는 다소 적게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향교의 운영은 전주 이씨에 집중되었다. 전주 이씨가 교임을 집중적으로 역임했으며, 신안서원의 제관(祭官)은 청주 한씨를 중심으로 역임되었다. 이처럼 신안서원의 건립으로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향권은 향교와 서원으로 양분되었다. 특정성관의 독주가 불가능한 상호견제의 향촌구조가 19세기에 들어서야 확립되었던 것이다.

한편 1847년부터 신안서원이 중앙의 서원철폐령으로 휘철되는 1868년까지는 ⑨ 전주 이씨의 독주양상이 약화되고 대신 청주 한, 풍산 심, 남양 홍, 전주 이, 여산 송씨가 대체로 균일하게 교임을 역임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교임역임에 비(非)유력 성씨의 참여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를 중심으로 하였던 계열구분은 더욱 희미해졌다. 계열의 구분과 무관하게 교임의 역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남양 홍씨와 풍산 심씨는 전주 이씨, 청주 한씨보다 많은 역임자를 배출하였다. 향교조직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안서원이 휘철된 이후부터는 ⑩ 청주 한씨가 다시금 향교로 대거 유입해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 두 대성의 교임 독점양상을 재현했다. 이 시기 청주 한씨는 20회, 전주 이씨는 15회에 걸쳐 교임을 역임했는데, 이는 여타의 성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횟수였다. 남양 홍씨와 풍산 심씨는 이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시기 청금안의 교임 역임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성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19세기 후반이 되어 양반사회의 향권이 다시금 두 大姓에 집중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실지역의 향권은 향안과 청금안에서 다수 입록했던 소수의 유력성씨를 중심으로 형성,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유력성씨 중에서도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로 대변되는 두 대성(大姓)이 지속적으로 향권을 주도했다. 시기에 따라 향임과 교임의 역임에 있어 끊임없는 변화가 발생했으나, 그 배경에는 향권 향배의 주도적 위치에 두 대성(大姓)이 있었다. 여타의 유력성씨는 두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계열을 분리했고, 직임을 다수 역임하는 대성(大姓)에 따라 다수로 등장하는 유력성씨 또한 변화했다.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향권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의 정치상황처럼 특정 성씨, 특정 계열의 전제화 양상도 확인할 수 없었다. 특정 성씨가 향권을 주도하더라도, 다른 계열의 성씨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곧 양반사회 내에서 향권을 둘러싸고 일정한 견제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정 성씨의 주도로 인해 발생할 향권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각 유력성씨 간 암묵적인 견제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처럼 향임과 교임을 둘러싼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향권은 대성(大姓)과 유력성씨들의 균형·견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양반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이들의 향권 지속을 위한 노력은 두 대성(大姓)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성(大姓)은 양반사회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이후의 장에서는 두 대성(大姓)에 집중해 향권 지속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절 소수 유력성관의 鄉權 지속을 위한 노력

### 1) 특정가계 중심의 향임·교임 재임을 통한 향권의 지속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는 양반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양반조직을 대표하는 수임(首任)을 역임했고, 조직의 실무담당자 역시 다수 배출했다. 이와 함께 향임과 교임의 역임은 두 대성(大姓)의 현조(顯祖)와 밀접한 가계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 양반사회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향권의 지속을 도모했다.

향청의 직임 중에서 향장(鄉長)과 좌수(座首)는 지방양반을 대표하는 직임이었다. 향장은 양반 중 가장 연장자로 선출하였는데, 그에게는 향임의 임명과 향안입록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부여됐다. 임실현이 속했던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향소(鄉所)와 향청(鄉廳)위에 ‘주론지원(主論之員)’이 위치하여 양반조직의 구심으로 역할을 했다. 향장(鄉長)은 이러한 주론지원(主論之員)의 하나였다. 이들은 향청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좌수와 별감의 향임에도 선출될 수 없었다. 즉 향장(鄉長)은 지방의 양반사회에서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던 존재였다.<sup>77)</sup>

향장이 향청의 외부에서 지방 양반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과 달리 좌수는 직접 향촌조직에 속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주도했다.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지방사회에서 수령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좌수는 수령의 부세업무와 향촌운영 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실제로 향청을 대표하고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임실지역에서 이러한 향장과 좌수는 대성(大姓)이었던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의 특정 가계 출신에 편중됐다. 청주 한씨의 경우 한진(韓璡)과 한경여(韓慶餘)<sup>78)</sup>의 가계에 주로 집중되었다. 이들은 임실지역 청주 한씨를 대표하는 가계로써 한진과 한경여의 후손이 이후의 향안과 청금안에 등장하는 청주 한씨의 주류를 이루었다. 한진은 1634년~1636년 향안에서 향장을 2회 재임했으며 그의 자제(양절공파 20대손)는 모두 당시의 향안에 입록되었다. 이후 2남 한경여(韓慶餘)와 3남 한경장(韓慶長)의 자손들이 향안과 청금안에 다수 등장했다.

한진의 3남 한경장(韓慶長)은 1646년, 1666년 향안에서 장의를 역임했으며<sup>79)</sup>, 그의 孫 한만유(韓晩愈)는 공사원(公事員)을 역임했고 한경여의 孫 한성태(韓聖台)는 1730년 향안에서 좌수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향임의 역임은 청주 한씨, 그 중에서도 한진과 한경여, 한경장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전주 이씨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전주 이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는 입록자 중에서 향장을 다수 역임하였던 이는 이구진(李久津)이었다. 그는 임실지역 전주이씨 시중공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1646년, 1654년, 1659년에 작성된 향안에서 3회 연속 향장으로 등장했다. 그의 1남 이의(李儀)와 2남 이여(李櫺)는 모두 이구진이 향장으로 나타난 향안에 입록되었다. 이구진의 孫이며 이의의 子인 이두환(李斗煥)은 1659년 향안에서 별감(別監)을 역임했고 이여의 1남 이태환(李台煥)과 2남 이시환(李時

77) 국사편찬위원회. (1998). 『신편한국사』 권31. 탐구당 문화사.

78) 韓璡은 임실 신안사에 주벽으로 배향하였던 韓好謙의 3남으로 사후 嘉善大夫로 추증(追贈)되었다. 韓慶餘는 韓璡의 2남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수직(壽職)되었다.

79) 일반적으로 掌議는 성균관이나 지방 향교에서 향사와 향교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임실향안』에서는 1646년부터 향임의 일환으로 장의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향안에서 등장하는 장의와 동시기 청금안에서 장의를 역임한 입록자는 전혀 중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향청에서도 掌議와 色掌직이 별도로 존재했음을 의미했다. 향교에서 장의와 색장이 실질적인 실무업무를 담당했던 것처럼 향청에서도 이 두 직책은 조직운영을 위한 실무를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煥)은 1689년 4월 3일 향안에서 각각 장의와 좌수를 역임했다. 특히 이태환은 판관(判官)에 제수되어 중앙관직에도 진출했다.

한편 전주 이씨 시중공파 이외에 효령대군 칠산군파도 다수의 향임과 교임을 역임했다. 대표적으로 이성(李晟)의 가계를 들 수 있다. 이성은 1607년, 1635년 향안에 입록되어 좌수를 역임했다. 그의 자 이원형(李元馨), 이춘형(李春馨)은 각각 1634년과 1635년 향안에서 좌수와 별감을 역임했다. 이후 이원형의 자 이문거(李文舉)가 향장을 수행했고 孫 이담령(李聃齡)은 4회에 걸쳐 교임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향장, 좌수와 같은 수임(首任)급의 향임은 이구진 가계와 이성의 가계에 집중해 나타났다.

대성(大姓)의 특정 가계에서 향임을 집중적으로 역임했던 양상은 향교의 교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양반사회의 대표적인 직임으로 자리매김하였던 재장(齋長)에서 특정 가계로의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가장 많은 수로 재장을 역임했던 전주 이씨의 경우<sup>80)</sup> 향임의 경우와는 다른 계파에서 집중적으로 역임했다. 향안이 작성되던 시기인 17세기에는 시중공파가 중심이었던 반면, 향교가 중심이 되었던 18~19세기에는 경녕군파와 효령대군파가 재장을 주로 역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녕군파의 이이훈(李彝勳)은 1767년, 1768년 재장에 재임했고, 그와 같은 계열이면서 4촌 관계인 이양훈(李良勳)은 1782년, 1783년, 그의 자 이기현(李基顯)은 1791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1635년 9월 14일에 작성된 향안에 입록한 이수민(李脩敏)의 후손이었다.<sup>81)</sup>

반면 19세기에는 전주 이씨 중 효령대군파에서 재장을 주로 역임했다. 이때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수가 이명우(李明宇)의 가계에 속해있었다. 이명우(李明宇)는 1700년에 장의로 활동했으며 그의 孫 이섭(李燮)은 1769년, 1770년에 재장을 역임했고, 이후 曾孫 이시원(李時元)은 1796년과 1798년, 이시원의 弟 이시중(李時中)은 1810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이명우의 후손들은 19세기

80) 청금안이 작성되었던 전 시기에 걸쳐 재장은 총 145건 등장했다. 재장을 역임한 성씨는 17개 성씨로 이중 전주 이씨는 145건 중 14%에 해당하는 20명, 청주 한씨는 13%에 해당하는 19명이 재장을 역임했다.

81) 李彝勳의 祖父 李雲相은 1718년 5월 『향안』에, 父 李齊松은 1703년 청금안에서 색장으로 나타난다. 李良勳의 父 李齊樞는 1708년 청금안에서 色掌을 담당했다. 李彝勳의 曾祖 李崑栽와 李良勳의 曾祖 李崑華는 모두 李脩敏의 자로써 1689년 9월 향안에서 등장하고 있다.

중~후반에 걸쳐 다수의 재장을 역임했다.<sup>82)</sup> 이처럼 18, 19세기 재장 역시 전주 이씨의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역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향안의 경우와는 다른 가계이었으나, 여전히 전주 이씨 내 유력 가계로의 집중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주 이씨 다음으로 많은 재장을 배출했던 청주 한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청주 한씨의 경우 청금안이 작성되는 대부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재장을 배출하고 있었다. 다만 청주 한씨는 전주 이씨의 경우와는 달리 직임을 주도하는 가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향안에서 향장과 좌수를 주도적으로 역임했던 특정 가계가 향교에서도 재장을 집중적으로 역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수의 향안 입록자와 향임을 배출하였던 한진(韓璵)의 가계는 향교에서도 교임을 집중적으로 역임했다. 청주 한씨에서 재장으로 나타난 19건의 기록 중 11건이 한진의 가계에 소속하는 인물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진의 3남인 韓慶長의 후손에게 재장의 역임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향안에서는 한경장의 후손 가계 중 한경장의 1남 한필성의 가계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18세기 이후의 청금안에서는 2남 한필현(韓必賢), 3남 한필명(韓必明)의 가계에서도 재장을 역임했다.<sup>83)</sup> 향교의 주도권이 한 가계 내에서도 방계의 다양한 인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청주 한씨에서도 특정가계를 중심으로 재장의 역임이 이루어졌다. 다만 향장의 경우와는 달리 재장에 역임할 수 있는 가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정 가계로 재임이 집중되는 양상은 18~19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가계가 향권 주도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실지역 양반사회의 대성(大姓)이었던 전주 이씨와 청주 한씨는 향임과 교임의 역임을 특정 가계에 집중시킴으로써 향권을 지속하고자 했다. 같은 성씨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가계에서 양반조직의 수임(首任)을 집중적으로 역임함으로써, 양반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보전하려는 의도

82) 李時中의 孫 이급(李汲)은 1838년과 1845년에, 李時元의 孫 이식(李湜)은 1872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李明宇의 孫이자 李燮의 弟였던 이엽(李燁)은 향안에 등장했고 그의 孫 이정진(李靖鎭)과 曾孫 이회운(李會浚)은 각각 1850년과 1892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83) 한경장의 1남 한필성의 가계에서 한징언(韓徵彦)은 1787년에, 한필성의 4대손 한함(韓涵)은 1818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한경장의 2남 한필현의 4대손 한발(韓潑)은 1803년, 1805년 각각 재장을 역임했다. 한경장의 3남 한필명의 가계에서 한필명의 孫 한홍오(韓洪五)는 1772년과 1773년에 재장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19세기 후반까지 한경장의 후손이 다수 재장을 역임했다.

였다. 물론 이러한 양상 속에서도 시기에 따라 향권을 주도하는 가계가 변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향권의 참여범위가 같은 성씨 내에서도 좀 더 다양한 가계의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을 의미했다. 결국 대성(大姓)의 향권 지속을 위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대성(大姓)의 향권 지속 의도와 더불어 임실지역에서는 성리학적 대표성의 강조를 통해 지방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시도는 청주 한씨의 사우(祠宇)이자, 임실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서원으로 기능했던 ‘신안서원(新安書院)’을 바탕으로 행해졌다.

## 2) 지방양반의 대표성 강조와 향권의 지속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부터 지방양반들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8세기 서원의 문중화로 인해 점차 지방양반과 특정가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sup>84)</sup> 지방사회의 대표성을 띠는 유현(儒賢)을 배향했고, 그로 인해 지방의 양반들은 자연스레 자신의 학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원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반들은 지방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했고, 향촌운영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했다.<sup>85)</sup>

임실지역의 대성(大姓) 중 하나인 청주 한씨 역시 지방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따라 신안서원을 건립했다. 이곳은 1588년(선조 21)에 신재(新齋) 한호겸(韓好謙)<sup>86)</sup>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한 사당을 건립하고자 ‘신안사(新安祠)’를 세운 것에서 비롯했다. 이곳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1789년 재건했고 곧이어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의 현조(顯祖) 5명을 배향했다.<sup>87)</sup> 이후 1820년(순조20)에는 함평의 자양서원으로부터 주자(朱子)의 영정을

84) 윤희면. (2004). 『앞의 글』. 참조

85) 이해준. (1991). “조선 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86) 휘는 好兼, 자는 明甫, 본관은 청주이다. 정난좌익공신 襄節公 韓確의 5대손으로 1535년(중종30)에 임실현 新安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후손들은 한호겸이 거주했던 신안지역에 거주하면서 결집했고 향촌사회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청주한씨 양절공파가 언제부터 임실현에 유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의 曾祖父인 韓建이 남원에서 벼슬하여 임실 主簿 宋世의 장녀와 혼인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그가 활동하였던 15세기 중엽부터 이 지역에 청주 한씨가 세거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新安書院誌』 ‘新安書院位次’.)

이배하고 ‘신안서원(新安書院)’이라 명명했다.<sup>88)</sup> 1852년에 당옹(戇翁) 이서(李絃), 1860년에 계산(溪山) 김수근(金洙根)을 차례대로 추배했으며 1968년에 무명재(無名齋) 강백진(姜伯珍)을 추가해 현재 총 9명을 배향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신안서원은 19세기 초, 중엽 청주 한씨의 주요 거점으로 기능했다. 신안서원의 전신(前身)인 신안사가 임실지역 청주한씨의 현조(顯祖)라 할 수 있는 한호겸(韓好謙)을 향사하는 데에 창건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곳에 추배된 인물 중 청주 한씨는 3명이었으며 이들은 한호겸의 후손들이었다. 청주 한씨, 그 중에서도 한호겸과 그의 후손을 중심으로 신안사가 건립, 운영되었던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호겸의 후손이 향권을 주도했던 주요 가계였음을 고려해보면, 신안사는 사실상 한호겸 가계가 향권을 지속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통성’과 ‘상징성’을 내포하는 주요한 권력 공간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곳이 지방 유력양반의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로 이곳에 성리학을 가장 분명하게 대표하는 주자를 배향한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청주 한씨를 필두로, 임실지역의 유력양반들은 이곳에 주자를 배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했다. 이들의 노력에는 사실상 주자의 권위를 통해 향촌사회에서의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주자배향으로 지방양반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이미 18세기부터 여러 지역을 걸쳐 나타났다. 특히 송시열(宋時烈)과 호남지역의 유림을 중심으로 주자학을 절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주자학에 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지칭하면서 주자의 도통(道統)을 강조했다.<sup>89)</sup> 이러한 주자의 절대화 의도는 지방사회에서 서원 배향인물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18세기에는 동쪽, 동성마을에 바탕을 두고 문중의 입향조나 현조(顯祖)를 배향하는 문중서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곧 주자존숭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던 시기적 특성과 결부되어, 문중이 배출한 인물 중 주자의 도통을 승계한 현조(顯祖)를 서원의 배향인물로 설정했던 경향이 다수 나타

87) 1789년 중건한 신안사에는 청주 한씨로 新齋 韓好謙, 晚晦堂 韓必聖, 鴻雲亭 韓鳴愈가, 여산 송씨로는 遯鶴 宋慶元, 距墨堂 宋時熊이 배향되었다.

88) 『新安書院誌』 ‘新安書院古蹟’. “萬曆戊子立新齋韓公祠以祭社之禮旋爲兵禍所撤. (중략) 去七月望韓宋兩友與邑有司韓術甫往于咸平紫陽祠奉朱夫子影禎舊本爲來懿歎美哉.”

89) 『肅宗實錄』 권 18, 숙종13년 2월 4일.

났다. 이로써 지방양반들은 주자학에서 강조하는 명분과 의리에 입각해 향촌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했다.<sup>90)</sup>

반면 양반사회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서원배향에 적합한 현조(顯祖)가 불명확한 지역에서는 가장 대표성이 분명했던 주자를 배향인물로 설정했다. 지방의 양반들은 지방사회를 대표할만한 인물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향촌사회를 대표할만한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성리학적 향촌사회에서 가장 대표성을 강조하기 수월했던 주자를 배향했던 것이다.<sup>91)</sup>

임실지역 역시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신안사에 주자를 배향함으로써 지방사회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만 여타의 지역에서는 주자배향의 서원이 18세기를 중심으로 양산했던 반면, 임실에서는 19세기 초반에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가 살피건대 萬曆 무자(1588)에 新齋公의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는 예를 행해 왔으나, 정유재란에 불타 철거되었다가, 기유(1789)년에 사당을 다시 세워 한 · 송(韓 · 宋) 여러 분을 함께 배향하고, 주부자의 영정을 모시기로 했다. 일이 크고 힘이 약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재산은 을 · 병년(을해, 병자; 1755, 1756)의 흉년으로 탕진된 지 몇 년이 지났다.<sup>92)</sup>

위의 내용은 1820년(순조20) 주자의 영정을 함평 회암서원으로부터 신안사로 이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최초의 주자배향에 관한 논의는 1789년(정조 13) 신안사 재건과 함께 이루어졌다. 임실의 지방양반은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의 선현을 배향한 신안사에 함평 회암서원에 봉안하고 있던 주자의 영정을 이배(移配)함으로써 서원승격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당시의 미약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90) 윤희면. (2004). 『앞의 책』. pp313-366

91)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pp251-253

92) 『新安書院誌』 ‘新安書院古蹟’. “勤按萬曆戊子立新齋韓公祠以祭祀之禮旋爲兵禍所撤.己酉立古祠聯享韓宋諸賢而營置朱夫子影禎矣.事巨力綿未遂其志先長老次第下世後所遺財產蕩於乙丙之歉而凡幾載矣.”

1755~56년 극심한 흉년의 여파로 임실지역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심각한 가뭄에 이어 큰 장마까지 발생해 이 지역 고을들의 작황(作況)이 매우 심각했다.<sup>93)</sup> 이때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주자제향의 시도는 좌절되었고 결국 30년이 지난 후에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청주 한씨를 위시로 하는 임실의 지방양반들은 전라도 유생들과의 연계를 통해 주자제향을 의도했다. 이들은 전라도 유생들과 연명해 태학관(太學館, 성균관)으로 주자의 영당건립과 제향에 관한 통문을 발송했다. 이 통문에서는 임실 내 ‘신안(新安)’의 지명과 주자의 본관인 ‘신안’의 명칭이 동일한 점, 당시 신안면에 존재했던 마을의 이름들이 주자의 출생지인 복건성(福建省) 내의 지명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자제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sup>94)</sup>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여러 지방의 양반들은 주자의 행적과 유사한 지명(地名)을 통해 주자배향 서원을 설립할 명분을 확보했다.<sup>95)</sup> 신안사 역시 지명의 유사함으로 주자제향과 서원승격의 명분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명분하에 당시 임실향교의 유사였던 한술(韓述)과 임실지역의 양반을 포함한 전라도 유생 66명이 연명하여 성균관으로부터 주자제향과 서원승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 통문에 연명했던 양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안사의 서원승격을 임실지역 양반 중에서도 청주 한씨가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명한 전라도 양반 66명중 임실지역에서는 19명이 참여했다. 특히 청주 한씨는 모두 5명으로 그중 한용(韓溶)과 한술(韓述)은 임실향교에서 교임을 3회 이상 역임했다.<sup>96)</sup> 또한 이 시기 청주 한씨와 계열을 같이했던 여산 송씨에서도 4명이 통문에 참여했다.<sup>97)</sup> 이처럼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는 통문에 다수 참여해 서원승격을 주도했다. 이외에도 전주 이씨, 남양 홍씨, 풍산 심씨 등 이 지역의 유력성씨가 임실지역 양반을 대표해서 통문에 참여했다.

93) 『英祖實錄』 권85, 영조 31년 6월 5일; 영조 31년 6월 18일; 영조 31년 9월 20일.

94) 『新安書院誌』 ‘全羅道儒生敬通太學館文’

95) 정현정. (2011).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96) 통문에 연명한 청주 한씨는 韓基壽, 韓復良, 韓溶, 韓述, 韓相曾 5명이며, 이중 한용은 1803년, 1807년, 1807년, 1816년 4차례에 걸쳐 色掌을 역임했다. 한술은 1810년, 1812년, 1813년 3차례 掌議를 역임했다.

97) 통문에 나타난 여산 송씨는 宋相輝, 宋啓玉, 宋基濂, 宋延泰 4명이며, 이중 송계옥은 청금안에서 掌議를 1회 역임했다.

이후에 작성된 여러 통문과 장계에서도 청주 한씨와 여산 송씨를 중심으로 서원승격의 시도가 이루어졌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임실의 양반들은 신안사의 주자배향과 서원승격을 위해 중앙의 교육기관, 전주향교, 정읍의 고암서원, 함평의 자양서원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문을 발송했다. 여기서도 한술(韓述)과 송기렴(宋基濂)을 비롯한 유력성씨의 일부 인물들이 통문의 작성자로 등장했다.

중앙의 예조(禮曹)와 전라도 관찰사, 임실현감에게 올리는 연명상소도 확인되는데, 한용과 한술, 송기렴을 비롯한 전라도 유생 통문에 나타났던 지방양반들이 다수 중복되어 나타났다. 임실현감에게 올리는 연명상소에서는 서원을 설립해야만 ‘유림의 논의가 외롭지 않고, 백성들의 타고난 본성에서 우러러 바라는 소리에 유감이 없다’<sup>98)</sup>고 밝히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임실지역 양반들이 공통적으로 주자배향과 서원승격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신안사를 재건하고 30여년 후가 지난 1820년, 신안사에 주자의 영정을 배향하고, ‘신안서원’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신안서원 설립이후부터 서원이 철폐되는 1869년까지의 시기동안 서원운영을 어느 성씨에서 주도했는지는 서원안(書院案)과 같은 서원운영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서원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을 청주 한씨와 일부 유력성씨에서 주도했음을 통해 이들이 서원이 훼철되는 1869년(고종 6)까지 서원의 운영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원으로 승격된 이후에도 주자의 영정과 함께 신안사에서 배향했던 기존의 위패를 그대로 유지하고 향사를 실시했던 점에서도 서원운영의 주도권이 청주 한씨와 일부 유력성관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1820년 주자영정 봉안 당시 청주 한씨는 제관(祭官)을 역임하였고, 주자를 비롯한 배향인물의 위패도 전담했다.<sup>99)</sup> 이러한 부분을 통해 신안서원에서 청주 한씨가 가지는 위상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앞선 내용에서 청주 한씨가 신안서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시기, 향교 교임의 역임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안서원의 설립을 주도

98) 『新安書院誌』 ‘化民上城主狀’. “(생략) 方爲妥妥影幀則上無犯新設之邦禁下不孤宿慕之儒論而於禮於情兩無所惑民等秉彝所存齊聲仰顛伏”

99) 1820년 주자영정 봉안 시 제관에는 執禮에 韓世澤, 奉享에 韓啓斗, 奠爵에 韓相曾, 司罇에 韓溶이 재임했다. 또한 기존 신안사에 배향되었던 五賢祠의 위패를 담당하는 奉位板은 韓基濂과 韓溶, 韓元瑞, 韓相曾, 宋延英이 전담하고 있었다.

한 청주 한씨는 서원이 휘철되는 1869년(고종6) 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향촌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실현 양반들은 지방사회에서의 권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 주자를 배향하고 신안사를 서원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신안서원의 전신인 신안사를 바탕으로 세력을 형성했던 청주 한씨는 서원의 승격과정과 서원설립 이후의 운영을 주도했다. 서원승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지역 유림과의 연명상소에 적극참여 했고, 서원 설립 이후에는 제관의 역임과 위패의 관리 등의 활동으로 서원운영에 참여했다. 이처럼 신안서원은 청주 한씨를 비롯한 임실지역 일부 유력양반들이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향사를 통해 향촌사회에서의 권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지방양반들은 향권의 지속을 의도했던 것이다.

## 제 5 장 맺 음 말

조선후기 지방사회에서 양반들은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향안』과 『청금안』 등의 명부 작성, 향청의 향임과 향교의 교임을 역임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방사회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스스로의 입증과정에서 양반사회 내부에서는 향권 주도세력이 변화하거나 또는 연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반사회의 동향을 전라도 임실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임실의 양반사회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주목할 만한 큰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향권을 둘러싼 경쟁의 모습은 확인되지만, 이 경쟁의 기저에는 향권을 주도했던 성씨구성의 지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전라도 임실현은 전라도 내 고을 중에서 중위권의 읍세를 보였다. 19세기 초반에서야 문중서원이 성립되었고, 사액서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원을 중심으로 향권이 형성되었던 지방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일반적인 수준의 경제상황과 지역을 대표할만한 중앙관료 또는 특정학맥이 부재한 배경에서 양반들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 유지하고자 자체적인 결속과 내부에서의 경쟁을 보였다. 이러한 임실지역의 모습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던 전주, 남원 등의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형태의 양반사회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임실현 양반사회는 향청과 향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소속 양반의 명부인 『향안』(鄉案)과 『청금안』(靑衿案)을 작성했다. 이 명부의 입록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양반사회가 형성되는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소수의 유력성씨가 양반사회를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세기 향안에서부터 입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5개의 유력성씨는 18~19세기 향안과 청금안에서도 다수로 등장했다. 소수의 유력성씨가 임실지역 양반사회를 지속적으로 주도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력성씨 내부에서는 향안과 청금안의 입록을 둘러싼 일종의 경쟁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1689년 향안에서 최대 다수의 입록성씨였던 여산 송씨는 입록자를 2향과 3향의 기준으로 '구분짓기'를 행했다. 향안입록을 둘러싼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동시기에 작성된 다른 향안에서는 여산

송씨가 배제되고 청주 한씨와 일부 성씨가 다수 등장했던 것으로 볼때 향안 입록을 둘러싸고 유력성씨 내에서 경쟁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향안과 청금안의 입록 추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향임과 교임의 역임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입록 추이로써 소수 유력성관이 주도하는 양반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냈다면, 향임과 교임의 역임양상을 통해 주도세력 내부에서 나타나는 내면 양상을 서술하고자 했다. 향정의 향임과 향교의 교임은 곧 양반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의미했다. 지방양반은 향임을 통해 지방사회의 공론을 주도했으며, 교임을 바탕으로 유교사회의 상징적인 행위인 선현에 대한 향사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임실지역 향임과 교임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앞서 입록 추이에서 나타난 소수의 유력성씨가 향임, 교임을 주도적으로 역임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주 한씨와 전주 이씨에 집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대성(大姓)이 이 지역 향권의 향배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여타의 유력성씨는 이 두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특정 시기에 따라 교차적으로 향임, 교임을 역임했다. 대체로 청주 한씨는 함양 박씨, 풍산 심씨, 남원 윤씨와 계열을 같이했고, 전주 이씨는 현풍 곽씨, 남양 홍씨와 함께 했다. 여산 송씨는 1689년 향안에서 최대 다수의 입록자를 배출한 이후 두 대성(大姓)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을 달리했다. 결국 두 대성(大姓)과 유력성씨는 향권을 중심으로 일정의 균형적인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기에 따라 주도했던 특정 성씨와 계열의 향권 전유현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청주 한씨가 향권을 주도할 때 전주 이씨도 향임 또는 교임에 참여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즉 임실현의 양반사회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바라본 극심한 대립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상호간의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균형과 견제의 권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지역의 유력 양반들은 향권의 주도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던 것이다.

한편 향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양반의 노력은 두 대성(大姓)의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두 대성(大姓)은 향임과 교임의 역임을 자신들의 현조(顯祖)와 밀접한 가계에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사회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확고히 했다. 청주 한씨에서는 가장 대표성이 명확했던 한진(韓璘)의 가계를 중심으로

향임과 교임의 역임이 이루어졌다. 한진과 그의 자 한경여(韓慶餘), 한경장(韓慶長)의 후손들은 향임의 수임적인 향장(鄕長)과 교임의 수임인 재장(齋長)을 집중적으로 역임했다. 이들은 임실지역에 세거하는 청주한씨의 대표적인 가계로 신안사에 배향되어 있는 한호겸(韓好謙)의 후손이었다.

이러한 향임과 교임이 특정 가계로 집중하는 양상은 전주 이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주 이씨의 경우 서로 상이한 가계에서 향임과 교임의 역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임의 경우 이구진(李久津)을 중심으로 하는 시중공파에서 집중한 반면, 교임의 경우 이이훈(李彝勳) 중심의 경녕군파 가계에서 집중적으로 역임했다. 전주 이씨에서는 다소 가계의 변화는 존재했으나,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향임과 교임을 역임했음을 알 수 있다.

향권의 유지를 위한 노력은 청주 한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신안사(新安祠)와 신안서원(新安書院)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안사는 청주 한씨의 문중사우였다. 19세기 초반, 청주 한씨를 위시로 임실의 지방양반들은 ‘주자’의 위패를 신안사에 배향하고 서원으로 승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주 한씨는 주자를 사우에 배향함으로써 이들이 향촌사회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취하고자 했다. 물론 신안서원은 중앙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곧 훼철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는 대성으로서의 대표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권을 지속하려는 청주 한씨의 의도가 여실히 반영된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임실지역의 양반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었고,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임실의 양반사회는 소수의 유력성씨를 위주로 구성, 운영되었다. 이들은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양반사회를 주도했다. 그 이면에는 향권을 둘러싼 유력성씨 내부에서의 경쟁양상도 존재했으나, 이 역시 특정 성씨의 주도권이 지속되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임실지역의 양반사회가 청주 한씨, 전주 이씨의 두 대성(大姓)이 주도하며, 여타의 유력성씨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및 유지되었던 것이다.

임실현 양반사회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밝힌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양반이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던 이 지역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목했던 주도세력의 변화 양상 대신 지배구조의 지속적인 모습만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상이 임실현에서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임실과 유사한 읍세(邑勢)를 지녔던 다수의 향촌사회에서 나타났던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임실 향안』

『임실 청금안』

『임실 읍지』

『조선왕조실록』

『관방요람』

〈문헌자료〉

임실군, 『임실군지』, 임실군지 편찬위원회, 1997

임실문화원. (2012). 『雲水誌』. 전주: 신아출판사

\_\_\_\_\_. (2016). 『임실의 齋堂』. 전주: 신아출판사

\_\_\_\_\_. (2016). 『임실의 亭子』. 전주: 신아출판사

강대민. (1992). 『韓國의 鄕校研究』. 경성대학교 출판부.

김인걸. (2017).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 서울: 경인문화사

김철배. (2017). 『임실사람 임실이야기』. 전주: 신아출판사

김현영. (1999). 『朝鮮時代の 兩班과 鄕村社會』, 서울: 집문당

나주향교. (2016). 『나주향교지』.

마르티나 도이힐러. (2003).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아카넷

\_\_\_\_\_.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서울: 너머북스

미야지마 히로시. (2014). 『양반』. 서울: 너머북스

송준호. (1987). 『朝鮮社會史研究』. 서울: 일조각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서울: 일조각

\_\_\_\_\_.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서울: 집문당

- 이해준. (1994).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朝銀文化社
- 전라북도향교재단. (1994). 『전북향교원우대관』
-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 정시열. (2013).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한국국학진흥원.
- 정진영. (198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한길사

### <연구논문>

- 가와지마 후지야. (1975). 朝鮮の郷規について. 『朝鮮學報』76. 朝鮮學會.
- \_\_\_\_\_. (1987). '단성향안'에 대하여. 『청계사학』4. 청계사학회.
- 강만길. (2000). 향전의 전개와 향안질서의 해체. 『한국사』1. 한길사
- 권기중. (2018). 조선시대 任實縣 守令의 출신성분과 在任實態.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 \_\_\_\_\_. (2018). 조선시대 산군(山郡) · 해읍(海邑)수령의 재임기간과 교체 사유 - 김제군·무장현·운봉현·진안현을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22. 포은학회.
- \_\_\_\_\_. (2018).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향리층의 존재양태-『운수연방선생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72. 동양고전학회.
- 김경란. (2019). 조선후기 忠淸道 公州牧의 有力 姓氏와 향촌 지배세력의 추이- 『鄉案』, 『居接名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92. 호서사학회.
- 김용덕. (1978). 鄉廳研究.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 김의환. (2016). 조선후기 단양 사족의 동향과 평산 신씨의 향촌사회 활동. 『역사와 실학』59. 역사실학회
- 김인걸. (1983). 조선후기 鄉案의 성격변화와 재지사족.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 \_\_\_\_\_. (1991). 조선후기 鄉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19세기 '鄉權' 담당 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형. (2005). 향안입록을 둘러싼 경남 서부지역 사족층의 갈등. 『조선시대사학보』33. 조선시대사학회
- 김현영. (1989). 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 한국역사연구회
- \_\_\_\_\_. (2003). 17세기 ‘鄭中’=『향안』조직의 형성과 향촌자치. 『민족문화논총』 2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문광균. (2018). 19세기 연기향교의 재정운영과 흥학책. 『역사와 담론』88. 호서사학회
- 박 범. (2018). 19세기말~20세기초 공주향교의 재정운영과 성격. 『역사와 담론』 88. 호서사학회.
- 박진철. (2006). 朝鮮 後期 鄕校의 靑衿儒生과 在地士族의 動向-羅州 『靑衿案』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박현순. (2007). 17~18세기 예안현 사족사회와 향안, 원생안, 교생안.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 송준호. (1986). 조선의 양반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북문화논총』 1.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 송찬식. (1977). 朝鮮後期 校院生考. 『國民大論文集』11.
- 심재우. (2019). 조선시대 향촌 사회조직 연구의 현황과 과제-향약, 계에 관한 성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90. 조선시대사학회.
- 차장섭. (2015). 陶山書院의 政治, 社會的 역할과 위상. 『역사교육논집』54. 역사교육학회.
- 안다미. (2019). 부여현 사족의 서원 활동과 ‘原鄕之家’의 의미. 『역사와 담론』 89. 호서사학회.
- 유기선. (2017). 17~18세기 상주향교의 청금유생. 『한국서원학보』5. 한국서원학회
- 윤인숙. (2014). 17세기 단성현 엘리트의 조직형성과 인적 네트워크: 단성향안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 윤희면. (1988).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기반. 『한국사연구』61. 한국사연구회.
- \_\_\_\_\_. (1989). 조선후기 향교의 청금유생. 『동아연구』 1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_\_\_\_\_. (2014). 조선후기 구례향교의 양반유생과 교육활동. 『남도문화연구』 27.
- 이범식. (1976). 조선전기 유학교육과 향교의 기능. 『역사교육』20. 역사교육연구회
- 이상순. (2014). 18~19세기 懷仁縣 지역 在地士族의 결합양상 『지방사와 지방문화』17. 역사문화학회
- 이종석. (2019). 17, 18세기 任實縣의 주도 성관 변화 추이 -향안과 통문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1998).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동향과 유림의 향촌지배 -전라도 금산군 서원·향교의 치폐와 고문서류의 작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7. 조선시대사학회.
- 이태진. (1978).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 이해준. (1991).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 정현정. (2011). 조선중기 주자제향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 한상우. (2012). 조선후기 鄉戰을 통해 본 양반층의 親族, 婚姻 -안동의 屏虎是非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1. 대동문화연구소
- 홍제연. (2018). 금산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錦山의 재지세력. 『역사와 담론』88. 호서사학회.

〈부표1〉 『官方要覽』 官職 附外官案 全羅道

	地名	戶	田(結)	軍	倉		地名	戶	田(結)	軍	倉
1	나주羅州	20,300	28,200	17,700		29	여산彌山	4,600	5,200	3,400	
2	전주全州	19,600	21,300	22,700		30	보성寶城	4,500	8,300	4,000	
3	흥양興陽	18,000	8,400	5,600	2	31	만경萬頃	4,400	4,200	1,400	
4	영광靈光	12,900	17,300	6,800		32	광양光陽	4,400	2,900	1,800	1
5	남원南原	10,800	13,200	8,300		33	임피臨陂	4,200	8,400	5,700	
6	강진康津	10,600	9,800	5,300		34	옥구沃溝	4,200	6,300	2,200	
7	장흥長興	10,300	10,200	4,200		35	고산高山	4,100	3,800	2,800	
8	영암靈巖	9,000	14,000	4,600		36	익산益山	3,900	5,100	2,600	
9	광주光州	8,300	11,300	6,400		37	금구金溝	3,900	5,200	3,000	
10	진도珍島	8,100	5,800	5,600		38	순천順天	3,800	11,900	9,900	
11	해남海南	8,100	11,600	5,600	4	39	장수長水	3,500	2,800	2,800	
12	태인泰仁	7,700	9,700	5,800		40	용담龍潭	3,400	1,600	1,700	
13	함평咸平	7,500	11,700	4,200		41	함열咸悅	3,200	4,400	3,100	2
14	제주濟州	7,200				42	진산珍山	3,100		1,200	
15	부안扶安	6,900	8,700	3,800		43	곡성谷城	2,900	2,900	1,800	
16	순창淳昌	6,800	6,400	6,900		44	낙안樂安	2,800	3,300	1,600	
17	장성長城	6,600	9,200	3,700		45	흥덕興德	2,800	4,600	1,300	
18	고부古阜	6,500	8,800	4,100		46	정읍井邑	2,300	3,100	1,500	
19	무장茂長	6,400	13,000	4,400	3	47	고창高敞	2,300	3,000	1,100	
20	금산鎭山	6,300	5,900	4,900		48	옥과玉果	2,200	2,600	1,600	
21	무안務安	6,300	4,800	2,500		49	동복同福	2,000	2,400	1,400	
22	담양潭陽	6,100	6,500	2,900		50	창평昌平	1,900	2,500	1,500	
23	무주茂朱	5,800	3,300	2,800		51	구례求禮	1,900	2,100	1,400	
24	김제金堤	5,800	19,000	6,500		52	운봉雲峯	1,800	2,300	1,700	
25	진안鎭安	5,700	3,400	2,400		53	화순和順	1,700	1,900	1,000	
26	임실任實	5,400	4,800	1,600		54	정양旌義	1,600			
27	남평南平	5,100	5,800	2,500		55	용안龍安	1,600	1,900	1,200	1
28	능주綾州	4,700	4,400	2,800		56	대정大靜	1,000			

- 음영을 삽입한 지역은 전라도 군현 중 산군(山郡)을 표시한 것임.

〈부표2〉 임실지역 서원 및 사우의 분포(100)

위치	서원 명칭	前身	창건시기	서원건립	배향	비고
임실읍	新安書院	新安祠	1588년 선조21	1819년 순조19	朱熹(主壁), 韓好謙, 韓必聖, 韓鳴愈, 宋慶元, 宋時熊	청주 한 여산 송
	孝忠書院			1989년	金億萬, 金億熙, 金順	전주에서 이전
청웅면	鶴亭書院	鶴亭祠	1600년 선조33	불명	金千鎰(主壁), 朴蕃, 朴薰, 洪鵬, 趙平	함양 박 남양 홍
덕치면	聖谷書院	德川祠	1784년 정조8	1918년	李菡(主壁), 李齊賢, 李廷堅, 李恒福	경주 이
	中洲書院			1850년	朴鉉(主壁), 朴薰	함양 박
삼계면	阿溪書院		1800년 순조원년		楊墩(主壁), 楊希迪	1906년 남원부에서 임실군 편입
	龍臺書院		1833년 순조33		金聲振(主壁), 金光爽, 金元重, 金元建	
오수면	三溪書院	歸魯齋	1664년 현종5	1717년 현종43	郭都(主壁), 郭興懋, 郭維藩, 郭后泰	任實縣 南面 1914년 둔남면
	德溪書院			1805년 순조5	李正叔(主壁), 李穡, 李如梓	南原府 屯德坊 1914년 둔남면
지사면	寧川書院 (사액)			1619년 광해11	安處順, 丁煥, 丁煥	1914년 이후 남원부에서 임실군 편입
	舟巖書院			1714년 숙종40	崔德之(主壁), 崔連孫	
	德巖書院			1607년 선조40	鄭夢周(主壁), 崔瀼, 朴從壽, 鄭知年	
	館谷書院			1736년 영조12	崔潤德(主壁), 李亨南, 李迪	
	玄洲書院			1702년 숙종28	李凌幹(主壁), 丁焰, 金復興, 邊瑜	

100) 全羅北道鄉校財團, 『全北鄉校院宇大觀』, 1994; 任實郡, 『任實郡誌』, 1997 참조

〈부표 3〉 1914년 임실군 경제상황

新面名	舊面名	面積	戶數	人口	地稅額	最遠距離	備考
任實面	一道面		465	1,963	1,892		
	里仁面		266	1,209	1,234		
	新安面		300	737	1,267		
	大谷面		158	715	856		
소계		258	1,189	4,624	5,249	130	
靑雄面	玉田面		428	2,000	2,295		
	九阜面		304	1,265	1,046		
소계		228	732	2,265	3,341	209	
雲巖面	上雲面		619	2,608	1,807		
	下雲面		491	2,395	1,693		
	上新德面		150	600	200		2개 리
소계		450	1,260	5,603	3,500	227	
新平面	上新德面		220	1,061	1,124		
	新平面		459	2,046	1,599		
소계		218	679	3,107	2,723	316	
聖壽面	上東面		707	3,512	2,272		
	下東面		255	4,661	1,245		
소계		470	1,062	8,173	3,517	224	
屯南面	南面		616	2,687	2,657		
	屯德面		577	1,282	2,289		
	南原인접 7개리		312	1,017	314		
소계		475	1,505	4,986	5,260	313	
新德面	下新德面		511	2,299	1,535		
	新平面		229	1,022	764		土古地外 二里
소계		310	740	3,421	2,299	216	
三溪面	梧樹面		380	1,731	1,663		
	穎川面		350	1,732	1,262		
	阿山面		446	2,305	1,696		
	石峴面		134	1,553	1,218		
소계		434	1,310	7,321	5,836	235	
烏川面	上北面		641	2,912	2,481		
	下北面		596	2,868	1,668		
소계		290	1,237	5,780	4,149	227	
江津面	江津面		868	4,240	234		
	九阜面		18	72			(필봉동)
소계		273	886	4,312	2,434	216	
德峙面	德峙面	220	752	3,822	2,523	130	
只沙面	只沙面	200	792	3,714	3,419	418	(남원부 소속)

\* 「임실군면의 폐합에 관한 건」 指令案 『朝鮮總督府 면폐합관계서류』, 1914 중 발췌.

〈부표 4〉 1689년 『향안』 중 2향, 3향에 속한 성관의 분포

	1689.04.03		1689.04.20	1689.09.11.	1718.05.02	1730.02.06.	1736.03.12	총합계	
	2향	3향	2향	2향	2향	2향	2향	2향	3향
여산 송씨	16	7					10	26	7
연안 김씨	2	1		6			3	9	1
전주 이씨	6	2		1			2	9	2
풍산 심씨				3			6	6	
평강 채씨	5							5	
오씨							3	3	
동래 정씨	1						2	3	
함양 박씨	2							2	
남원 윤씨				2				2	
옥천 설씨							1	1	
양씨				1				1	
조씨	1	1						1	1
청주 한씨	1							1	
총합	34	11	0	13	0	0	27	74	11
	45							85	

## ABSTRACT

### The Management of Hyangchon by the Members of Local Yangban and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in Late Joseon Dynasty in the Imsil-Hyun, Jeolla-do

Jang, Seok-Hyeo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thesis attempts to show the power relations among local Yangban over the management of Hyangchon in late Joseon Dynasty in case of the Yangban community in Imsil, Jeolla-do. The existing scholarship has viewed the power relations among local Yangban at the Hyangcheong and Seowon as reflecting the changes in local leaderships of the Hyangchon as well as social changes in late Joseon Dynasty. The existing scholarship tends to recognize the power relations in some specific areas in the provinces of Jeolla and Kyungsang as representing the generic pattern of local communities in late Joseon Dynasty.

The existing literature has not clarified how changes in power structure in specific areas could be characterized as representative of overall local communities in late Joseon Dynasty. To examine this issue, this thesis

chooses the Imsil area in the province of Jeolla, which has not been dealt with by previous scholars. In the Imsil area, which had weak economy and failed to produce bureaucrats working for central government or an academic lineage, its Yangban class had to unite in order to maintain their social status. The power relations among the Yangban community in the Imsil area presents a new case of the power struggle over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among local Yangban.

This thesis examines the family names appearing in the Hyangan(鄉案), registry of Yangban in Hyangcheong(鄉廳), and the Cheonggeuman(靑衿案), registry of Hyanggyo(鄉校) officials, in the Imsil area. It also looks into the leaders of Hyang and Hyanggyo in it. The Imsil Hyangan, which was recorded between the 17th and the mid-18th centuries, listed the names and bongwan[the origins of a family] of the 923 members of the Hyangcheong as well as their positions in the Hyangcheong. The Imsil Cheonggeuman, which was recorded betwee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cluded the names, bongwan, relative family trees, and distant ancestors of each of the 1,188 members who took leadership roles in the Hyanggyo.

The Imsil Hyangan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confirms that five major families dominated the area. Members of these five families comprised 50.3 percent of the entire members of Yangban registered in the Imsil Hyangan, which listed 24 family names. The Cheonggeuman, registry of the officials of the Hyanggyo, showed a similar pattern. The small number of leading families that appeared in the Hyangan had quite an influence in the Hyanggyo, consisting of 67 percent of the entire members listed in the the Cheonggeuman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Cheonggeuman, the five powerful families that comprised majority of the Yangban registered in the Imsil Hyangan produced the most majority of the officials of the Hyanggyo. Major powerful families continued to hold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The lasting influence of the leading families was also confirmed in the pattern of the employment of the jobs at the Hyangcheong and Hyanggyo. A small number of leading families took the position of Jwasu(座首), the chief of the Hyangcheong, which was the highest office of the Hyangchon,

Byeolgam(別監), and officials of the Hyanggyo(校任). The Cheongju Han family(淸州韓氏) and the Jeonju Yi family(全州李氏) were the more prominent ones among the leading families. The interests of the other three families were formed along the two most powerful families. The leading families forged a system of check and balance over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striving to continue to reign the authority with a joint effort.

The Cheongju Han family and the Jeonju Yi family kept their power intact by holding offices in the Hyangcheong and the Hyanggyo, which underscored their representative roles in Hyangchon society. They also claimed their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 as representative of Confucianism. They showed their devotion to Confucianism by transforming their family shrines into Seowons and building a Confucian shrine.

With these findings, this thesis confirms the following. The Yangban society in the Imsil area between the 17th and 19th centuries did not follow the pattern of power relations among the members of Yangban in other areas, which witnessed the shift of power from one group to another. Unlike other areas, a small number of powerful families were formed a ruling authority in the Imsil area. The leading families in the Imsil area ran the management of local Yangban community. The two most powerful families, the Chegonju Han family and the Jeonju Yi family, were at the center of that Yangban community, drawing the participation of the other families.

Key-words : the authority to govern the Hyangchon(鄉權), Hyangan(鄉案), Cheonggeuman(靑衿案), Officials of the Hyangcheong(鄉任), Officials of the Hyanggyo(校任), Confucian Shrine
--